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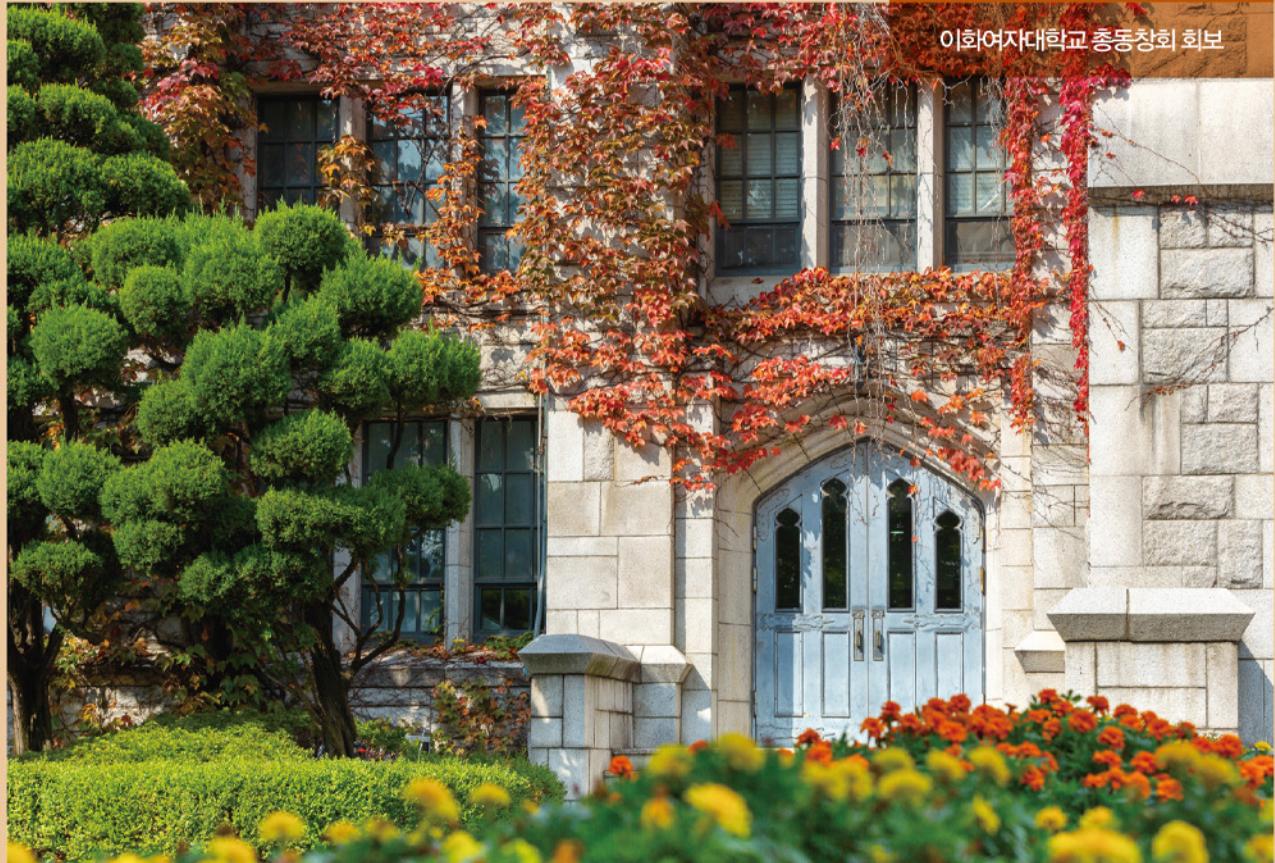
2024년 가을호 vol.176

이화 동창

2024 총동창회 대바자회

이대 박물관에 평생 모은 유물 기증한 김춘자·이세민 부부
대형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희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의 새 기념품이 나왔습니다



1 타월 세트

타월(60수 코마사)과 핸드 타월이 각 1개씩 들어 있습니다.
타월 세트는 포장이 기본 옵션이며, 포장지의 색상은
그린과 흰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포장지 색상 선택을 위하여
유선으로 각 재고를 먼저 확인 후 주문해 주세요)
- 가격 : 18,000원
- 색상 : 흰색(포장 옵션:그린, 흰색)
- 크기 : 타월 80cm × 38cm /
핸드타월 32cm × 35cm(고리 5cm)



2



3 카드(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꽃 5종 세트/건물 5종 세트)
각 세트 별로 5개의 카드와 5개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 안에는 흰색 속지가 붙어 있습니다)
- 가격 : 시리즈별(5종 세트) 각 20,000원
- 크기 : 가로 175mm × 세로 124mm

엽서북(19종 세트, 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 가격 : 30,000원
- 크기 : 가로 180mm × 세로 127mm



4

문진(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대강당, 본관, 배꽃 세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 가격 : 각 20,000원(낱개 판매)
- 크기 : 문진 바닥 지름 65mm × 높이 30mm(가장 높은 곳)



5 에코백(소)/에코백(대)

양면 각각 디자인이 다르고, 자석 똑딱이와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안주머니 사이즈-가로 15cm × 세로 13cm)
- 가격 : 에코백(소) 30,000원 / 에코백(대) 40,000원
- 크기 : 에코백(소) 윗부분 가로 33cm × 세로 25cm
(손잡이 포함 42cm) × 아랫부분 가로 27cm × 폭 10cm
에코백(대) 윗부분 가로 42cm × 세로 33cm
(손잡이 포함 60cm) × 아랫부분 가로 34cm × 폭 10cm



6 통영 누비 슬리퍼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 드립니다.
- 로고 없는 하늘색 슬리퍼 : 30,000원, 사이즈 280mm 내외
- 배꽃자수 있는 슬리퍼 : 40,000원, 사이즈 260mm 내외
- 하늘색 슬리퍼 1+배꽃자수 슬리퍼 1 세트 : 60,000원
(정가에서 10,000원 할인 특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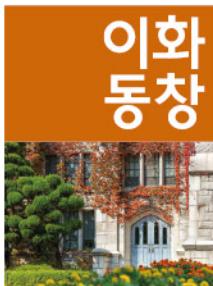
* 제품별 상세 사이즈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www.ewhaalum.or.kr)를 참고해 주세요.

■판매 장소 :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사무국(02-3277-3386, 3387)

■판매 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00(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품목당 1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수첩, 달력은 제외)됩니다.

* 택배 주문(02-3277-3386, 3387 또는 ewhaalum@ewha.ac.kr)도 가능합니다. 단, 택배 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대강당 쪽문 담쟁이와 메리골드 화단
(2021)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최자영(사화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화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4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03

03 2024 총동창회 대바자회

정성 가득, 사랑듬뿍 얹은 모교 장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즐거운 바자회



10

10 우리는 이화 가족

이대 박물관에 평생 모은 유물 기증한
김춘자·이세민 부부



14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연극치료 선구자 박미리 동창



17

17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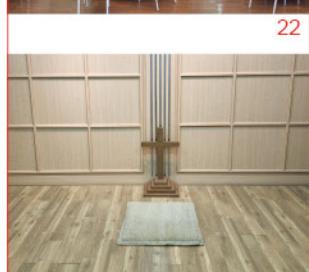
대형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희 동창



22

22 이화인 모임 탐방/청간 70주년 맞은 『이대학보』

600여 명에 이르는 학생 기자 배출
70년의 전통을 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다



26

26 이화의 기도처 순례/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

함께하는 '한우리' 공간에서 안식을 찾다

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30 총동창회 소식

'이화인의 봄' 티켓 판매 활성화 논의 외

34 선교부 소식

방학 기간 단기선교 학생들을 후원하며

36 모교 소식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분야 최고 등급 획득 외

40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45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4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1 동창근황 이해경 동창 외

72 동창이 펴낸 새 책 『시드니 할매's 데카메론』 외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편 94:17)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은총으로 새날을 맞게 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당신의 심정과 맞닿는 간구로 마음 모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거짓을 감싸고자 더욱 다양해진 우리의 거짓을 속히 들추어 벗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간과하여 넘나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여상하신 빛으로 겸손한 눈밝혀 주시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로 연계하는 손과 발 되도록 이끄셔서
정한 자의 길로 이어 든든히 엮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며 이곳과 저곳으로 튕어 흘어 놓는 영적 궤계를 분별케 하심으로
오직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두 손 모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메우고자 더욱 풍성해진 우리의 구부러진 말을 친히 막아 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여 오고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이들을 불드시되 무릇 악한 이들을 엎드려뜨리시는 당신의 참사랑을 쾌게 하시며
선악 간 바라보시는 불꽃같은 당신의 눈동자 마주할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이끄셔서
선한 자의 길로 다져 단단히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황폐해진 성읍과 성소를 당신의 숨결로 불어 거룩케 하심으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세밀히 보시는 당신 앞에 한뜻 모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뚤어진 입술을 치장하고자 더욱 짙어진 우리의 비뚤어진 입술을 가히 지워 제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나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으신 당신의 헤아림 안에 겸손히 머물러 거하게 하시며
선과 악을 가르시는 당신 앞에 투명한 낯으로 향하도록 이끄셔서
당신의 길로 잇대어 당당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은 결코 듣지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24 총동창회 대바자회

정성 가득, 사랑 듬뿍 얹은 모교 장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즐거운 바자회

총동창회에서는 9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동창회 기금 마련과 동창 간의 친목 도모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바자회를 모교 생활환경관 주변과 학생문화관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각 학과와 대학(원) 및 단체 50여 개 팀이 참석해 70여 개의 부스에서 펼쳐진 이번 대바자회는 이례적인 9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러졌다.

총동창회는 동창들에게 미리 문자를 발송해 무더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낙타한 생수를 준비했으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 바자회인자리 폭염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악조건 속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혼신을 다하는 동창들의 모습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날 바자회장에는 장명

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그리고 김은미 모교 총장을 비롯한 많은 이화 동창들이 찾아와 격려하였다.

불판 앞에서 혼신을 다해 먹거리 만들어

오전 10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의 시작을 알리며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 시원한 장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본부석에서 매년 인기 상품인 저염 백명란 1kg과 신규 제작한 기념품을 선보였다. 총동창회는 바자회 전에 일찌감치 백명란 주문 신청 링크를 동창들에게 발송해 온라인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였다. 총동창회 신규 기념품은 모교 ECC를 프린트한 에코백(대, 소)과 황규호 명예교수의 ‘이화의 사계’ 사진 작품을 활용한 문진(대강당, 본관, 배꽃 세 가지 디자인), 엽서북, 카드 5종 등이었다.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존은 생활환경관 계단 주변으로 융합보건학과와 문현정보학과, 장식미술과 공간디자인전공, 통계학과, 물리학과가 잔치 마당을 펼쳤다.

지난해에도 절찬리에 판매된 (영천시장) 달인꽈배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융합보건학과는 올해도 300개를 완판시켰다. 폭염 속 불판 옆에서 어떻게 일할까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직사각형의 업소용 떡볶이 철판과 바로 옆에는 어묵과 물떡을 꽂일 들통까지 준비 완료! 재학생들에게 인



개회사를 하는 이병경 총동창회장

기 좋은 물떡은 일찌감치 매진되었다. 오후 세 시가 넘어 마지막 한 판을 새로 얹고 끓기를 기다리는 융합보건학과 동창들은 “재료가 남았는데 수익을 남겨야죠, 5분 있다 오세요”라며 씩씩하게 외쳤다. 너무 더워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잠시, 점심 무렵이 되자 활기를 띠었다.

장식미술학과 공간디자인전공 장터에서는 ‘바로 구워 뜨거운 전을 후후 불어 먹는 맛!’이란 재치 있는 홍보 문구 아래 동창 5명이 빈대떡 반죽 세 말을 준비해 프라이팬에 불이 났다. 맛있다고 소문나 추석용 대량 포장 주문까지 밀려들자 부스 안은 불판의 후끈한 열기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 그래도 맛 가득, 영양 가득, 정성 가득한 음식에 동창들의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다.





동창뿐 아니라 재학생과도 훈훈한 정 나눠

통계학과는 작년 히트상품 '차돌박이묵은지 볶음밥'에 올해는 계란프라이를 얹어 업그레이드했고, 고농축 더치커피 원액과 아이스 음료도 후식으로 준비했다. 옆에 예쁘게 쌓인 소형 생활용품업체 '제니퍼룸' 미니 선풍기와 보냉컵, 에코백은 판매용이 아니고 후배 재학생들 줄 선물이란다. 정순영(통계 93) 동창은 "선물 40개를 준비했어요. 통계학과 후배들에게 바자회장에 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알렸더니 오전에 벌써 10개를 받아갔어요"라며 뿌듯해했다.

물리학과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8명의 동창이 음료와 조리 파트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떡볶이와 순대를 조합한 '떡순이 세트'와 해물 가득 김치전과 함께 냉청귤 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냉음료를 준비해 점심 무렵 불티나게 판매됐다.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자회장 초입에 자리 잡은 노란색 푸드 트럭, 바로 학생들의 인기 아이템 '노티드 도넛'이다. 오후가 되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을 서면서 준비한 300박스가 완판됐다.

문헌정보학과 '미니멘츠 구슬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는 재학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섰다. "마감 시간이라 빅 구슬을 서비스로 얹어 주신 것 같아요"라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삼삼오오 장터를 누비는 재학생들의 모습이 싱그러웠다.

이 외에도 '카페 연희' 현수막을 걸고 각종 음료와 샌드위치 및 김밥을 준비한 사회복지학과는 통행로에서 시음 행사를 열어 갈증 해소를 도왔으며, 다수의 부스에서 차가운 음료를 준비해 열기를 식혀 주었다. 바자회장을 찾은 동창들은 생활환경관 계단 옆 EAT ZONE과 새로이 마련한 학생문화관 앞뜰

REST ZONE에서 식사하며 폭염도 못 말리는 수다로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음, 시향 등 체험 부스와 이색 상품들 눈길

“봄마음 숟가락”으로 안심(安心) 식사 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글로벌생활명품으로 선정된 프리미엄 실리콘 수저 세트가 반값에 판매되었다. 소비자학과 부스의 이한결(소비자 19) 동창은 “할머니가 스텐 숟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깨져버린 작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어 어렵신 친화적인 숟가락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을 잘 흘리는 노약자를 위해 한 술의 크기를 15cc 넘지 않게 설계하고 수평 마감 디자인과 손잡이에 신경 썼으며 의료용 재질로 안심 숟가락을 만들었다는 것. 디자인은 친구인 황차영(서양 19) 동창의 작품이고 ‘봄마음 숟가락’ 이름은 엄마 이름 춘심(春心)에서 따왔다. 회

사 이름이 ‘세모녀’인 것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컬트 동아리 ‘이화컬트’ 회원인 서희성(식영 91) 동창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 컬트 소품과 세상에 하나뿐인 파우치, 가방, 앞치마 등을 전시 판매해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비취, 호박 등 원석을 활용한 미송이(간호 98) 동창의 수제 액세서리도 시선을 끌었다. 생명과학과에서는 유리와 패브릭을 소재로 만든 ‘달드베르’의 다채로운 아트워크를 선보였다.

황현주(가관 92) 동창의 생화 꽃바구니도 눈길을 끌었다. 새벽 꽃시장에서 리시안셔스, 장미 등을 가져와 시중의 4~5배 풍성한 양으로 제공했는데, 더 위에 지친 동창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쉬어갈 수 있는 시음, 조향 체험 부스에도 발길이 이어졌다. 생활환경대는 우미형(의직 77) 생활환경대 회장의 딸 최수희(생명과학·환경학 07) 동창이 양자분석기로 현장에





파격 할인과 아나바다 물건 속에서 진주를 발견
하느라 바쁜 동창들, 피는 것도 신나고 사는 재미
도 쏠쏠했다



서 건강 체크를 하고 무료로 컨설팅을 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여러 아로마 향을 배합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향을 조합(아로마케미 제품)하는 화학과 부스에는 바자회장을 찾은 재학생들이 차분히 앉아 진지하게 향을 음미하고 조향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보였다. 섬예과는 액세서리 코너 한 옆으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팔찌에 뿐려 시향하게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공 특성을 살린 상품으로 독특함 자랑

인문대의 국문·중문·영문·불문·독문·기독·사학 일곱 개 학과에서는 동일한 명찰과 앞치마를 착용해 통일성을 주었고, 독문과의 학과 특성을 살려 독일어 문구를 새겨 넣은 티셔츠가 눈에 띄었다. 독일의 시인 노발리스의 책 제목『파란꽃(Die blaue Blume)』과 꽃모양을 프린트한 티셔츠와 함께 고테의 파우스트 “Verweile doch, du bist so schön!(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문구를 새겨 넣은 티셔츠 등이었다. 오가닉 면 100% 재질도 좋고 의미 있는 문구를 새긴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문과는 판다 굿즈를 비롯해 ‘대만에서 온 동

방미인차와 자스민차’를 현지 구입가격으로 판매했고, 약학대는 요즘 꼭 필요한 비접촉 적외선체온계를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관심을 모았으며, 조형대는 동양화·조소·섬예·생미·도예과가 참여해 특색 있는 아나바다와 동창들이 만든 액세서리 소품 및 잡화점으로 멋들어진 공간을 만들었다.

조소과는 오주연(조소 90) 동창이 가죽으로 만든 지갑과 소품류, 차경화(조소 00) 동창이 나무 재료로 만든 목걸이와 열쇠고리, 이우현(조소 15) 동창이 영롱한 진주로 빚어낸 목걸이가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정품 스와로브스키 원석을 사용한 주얼리를 선보인 섬예과, 의류와 잡화를 신색애(新色愛) 흠풀링으로 부스를 꾸민 생미과와 도예과, 개봉도 하지 않은 매트리스 커버·시트 세트 상품을 1만 원~2만 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동양화과와 조형예대 부스의 아나바다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감탄하면서 둘러보게 하는 매력이 있다.

‘랄랄랄 장터’는 성악과 장터의 명칭이지만 음대 장터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가 됐다. 도미나스 크림과 와인(성악), 아나바다(관현, 종음)와 보냉가방(피아노) 등 의류와 가방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선보였

는데 즐거운 기운이 넘쳤다.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명절 준비 용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비자회 장터에는 각 부스마다 명절 준비 물품이 다양하게 구비되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바자회 전날 짠 참기름과 들기름을 각 30병씩 가져와 1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모두 매진되었다. 깨소금과 구운 김, 한과(신대원), 건다시마, 건미역, 부각(수학과), 남해죽방멸치, 아귀포, 미역(작곡과)을 비롯해 호박, 고구마, 감자 한 봉지에 5,000원(피아노), 평창홍로사과 5kg(특교) 등 지역특산품도 다양했다. ‘일곱 가지 곡물을 쪄서 말려 맥반석에 굽고 설탕 없이 조청만으로 맛을 낸’ 수제 강정 100개를 준비한 국문과는 사전판매로 60개를 선판매했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부스에서 만난 김자혜(사회 74) 동창은 ‘귀리오란다’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전국에서 귀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강진이에요. 추석에 맞춰서 제작해왔지요”라면서 시식을 권했다.

전통 장류를 준비한 곳도 많다. 기순도 장류(식영과), 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명품 고추장(피아노), 명품 된장(무용), 수제 맛간장(체육)을 준비한 과도 다수였다. 직접 만든 바질 페스토(경제학과), 유기농 허브 식초(기독교학과) 등 특색 있는 수제 먹거리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회학과는 농협 꿀과 프로폴리스 화장품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오숙영(사회 77) 동창은 “오늘 모이는 사회학과 동창만 100여 명”이라고 하며 남다른 단합을 과시했다. 이날 마침 생일을 맞은 김은미(사회 81) 총장이 바자회장에 들어서자 사회학과 동창들이 현장에서 깜짝 이벤트로 축하 케이크를 선사하였고, 바자회에 참석한 동창들이 함께 환호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무용과의 프라이팬은 매년 믿고 찾는 인기 제품이다. 예쁜 색상의 르쿠르제 냄비를 60% 할인 판매한 경영학과에는 요리조리 살펴보는 동창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더위에 지친 피부를 재생시켜 줄 화장품은 영문과(동화약품의 후시다인 크림), 정외과(더마



데카크림), 약학대학(프롬더스킨)이 내놓았으며 “엄마가 아이소이 세럼과 크림 사오라 했어요”라며 국문과 부스를 찾았는데 품절돼서 돌아가는 동창도 있었다. 환절기 건강을 챙길 영양제를 제공하는 체육대학(덴마크유산균)과 식영과(비타믹스) 제품도 바자회 단골 상품이다.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창들의 열기 뜨거워

식영과는 생활환경관 내 410호에 커피 쉼터를 별도로 마련해 ‘아픈 다리도 쉬고, 담소 나누고 가세요!’ 안내문을 붙여 동창들을 반겼다. 오픈 전 일찍 바자회장을 찾은 식품영양학과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를 비롯해 많은 동창이 와서 힘을 보태 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문과와 기독교학과의 액세서리 코너에는 종일 동창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불볕더위로 지칠 법도 한데 ‘귀 뚫은 사람 다 들어오세요!’라고 외치는 기독교학과 동창들은 바자회장의 분위기를 띄우며 열심이었다.

바자회 소식을 듣고 분당에서 달려온 이소영(사학 89) 동창은 “날이 더워 캠퍼스 순례를 못해 아쉬웠지만 사학과에서 예쁜 목도리도 득템하고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하며 “미리 주문했던 총동창회 명란젓은 양가 어머님들이 다 좋아하신다”며 내년을 기약했다.

‘이올(올해의 이화인 연합회)’은 회원들의 다양한 기증 물품과 함께 김밥·시원한 얼음식혜를 구비해 더위로 지친 동창들의 열기를 잠시 식혀 주었다. 매년 이소연(성악 87) 동창이 기부하는 ‘오브эм’ 구두는 편한 신발을 찾는 동창과 교직원들의 필수 코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흑임자가루와 쥐눈이콩가루 등 전통 식품을 순수 정성껏 만들어 온 주성희(의직 74) 동창의 제품도 인기리에 판매됐다. 2024 올해의

이화인 부스에서는 피현정(국문 94) 동창이 제작하는 디렉터파이의 화장품 4종 세트를 비롯해 휘슬러 컵, 메디큐브 마사지기, 골프 의류 등 인기 상품을 반값 이하로 판매해 동창들로 붐볐다.

한복스튜디오를 하는 권혜진(의직 93) 동창은 한복의 질감을 살려 만든 조끼를 진열하였는데, 바자회장을 찾은 대외협력처 박민정(기관 99) 쳐장이 멋지게 소화하고 나온 바람에 일찌감치 완판됐다. 심리학과는 올해도 기증품과 명품 아나바다로 동창들의 발길을 불들었다. 청정원 식품을 기증받아 판매해 온 대학원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3년째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 1인용 레토르트 식품이 단돈 1,000원, 재학생과 동창들에게 인기리에 판매가 됐다

매년 추석 전주에 개최되는 총동창회 대바자회는 아외에서 개최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쩐지 너무 덥다 했는데, 오후 네 시에는 행안부에서 폭염 경보 알림이 울렸다. 서둘러 매대를 정리하는 가운데, 방문판매(피아노)로 재고떨이에 나서며, ‘무거운 것부터 사주세요’라며 온정에 호소(대학원)하고, ‘재학생 반값!’, ‘무조건 만 원!’ 외치며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동창들, 날씨는 덥지만 표정은 밝고 감동이 밀려든다. 불볕더위와 열기 뿐이내는 실외기 앞에서 열사병에 걸릴 새라 얼음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번갈아 쉬어가며 서로 북돋우며 동창들의 유대감이 돋독해지는 시간이었다.

어느새 무거워진 장바구니와 함께 풍성해진 마음 안고 아쉬운 작별을 나누며 기도한다. 내년 대바자회 때는 덥지도 않고 태풍도 없는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길.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우리는 이화가족/
이대 박물관에 평생 모은 유물 기증한
김춘자·이세민 부부

후배들에게 전통과 지혜를 전하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김춘자·이세민 부부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기증전시관에 가면 '아름다움을 전하다' 기증특별전(2024년 12월 31일 까지)을 관람할 수 있다. 기증전시관은 기증받은 문화유산을 선보이고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이다. 지난 5월 31일(금), 이곳에서 매우 뜻깊은 유물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개관 아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기증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들이 한평생 모은 유물이 온전히 후대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자기 114건 121점을 선뜻 모교 박물관에 기증한 김춘자(약학 63) 동창과 이세민(서울대 약대 졸) 선생 부부다.

이날 기증식에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증식은 박물관 개관 9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김춘자 동창 부부가 전해준 기증 유물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사례이고 기증의 훌륭한 본 보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교 박물관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유물 기증식 자리를 마련한 것은 선조들의 일상생활용품에서부터 왕실의례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로 구성된 김춘자 동창 부부의 이번 기증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도자 컬

렉션을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미술사 및 유물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김 동창 부부가 각별히 아끼고 애장했던 기증 도자기 114건 121점 중에는 청자상감 국화문 탁잔(青磁象嵌菊花文托盞)과 청자음각 연화문 표형 주자(青磁陰刻蓮花文飄形注子), 고려 청자유병(青瓷油餅) 같은 고려 청자에서부터 백자 양이잔(白磁兩耳盞), 백자청화 운룡문 호(白磁青畫雲龍文壺), 백자청화 십장생문 발(白磁青畫十長生文鉢) 등의 조선 백자에 이르기까지 기증의 전례가 드물고 미술사적으로 높은 가치의 수집품들로 기록된다.

아름다운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로

여름 늦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만난 김춘자 동창은 "앞으로 모교 동창들 사이에서 더 훌륭한 기증자들이 많이 나오고, 아름다운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부부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입을 열었다. 서울 성동구에서 42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2009년 은퇴한 김춘자 동창과 이세민 선생은 약사 부부로, 결

흔 초부터 뭐든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취미 삼아 수석에서부터 그림, 민속품,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모으다 보니 점점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고미술과 우리 유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깊어졌다. “우리 부부는 약국을 하면서도 정치 좋은 데 놀라 다니는 대신 틈틈이 인사동, 장안평 같은 골동품 가게, 또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까지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수집하고 싶은 것이 눈에 띄면 몇 날 며칠 동안 자다가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그것에 집중적으로 빠지곤 했죠. 50~60년 이상 수집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그만큼 카테고리도 다양해졌어요.”

한평생 열정적으로 문화유산을 수집해 온 부부 수집가의 안목은 고미술은 물론, 문화재학과에서 감정학 공부까지 섭렵하면서 한층 더 수준급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전문 수집가답게 문화유산의 제작 시기, 기법, 용도와 형태 등 구색과 균형을 갖춰 다양하게 수집했다. 오랜 세월 유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여럿 있다. 전북 익산을 여러 차례 오가며 어렵사리 구입한 고려 청자유병도 그중 하나다.

황미경 악대 동창회장, 신민경 악대 개국동창회장, 장남원 박물관장, 권영희 대한악사회 서울지부장, 이세민·김춘자 부부, 김은미 모교 총장, 최평훈 대한악사회 회장, 조진희 악대 전(前) 개국동창회장, 김영희 대한악사회 성동분회장과 함께(왼쪽부터)



기증식에서 장남원 관장, 김춘자 동창, 김은미 총장(왼쪽부터)

“우리는 이 유물들을 잠시 보관만 했을 뿐”

국보나 보물의 이름은 어렵게 느껴진다. 한자로 되어 있는 데다, 이름을 붙이는 일정한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도자기 이름인데, 여기서 잠깐 이름을 붙이는 규칙과 순서를 알아보자. 도자는 ‘자기의 종류+무늬의 표현방법+무늬의 내용+그릇의 모양’ 순으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김 동창 부부가 기증한 유물 중 ‘백자청화 운룡문 호’(조선 19세기 후반)를 보면, ‘백자(제작방식에 따른 자기의 종류)+청화(무늬 표현방법)+구름과 용 무늬(무늬의 내용)+호(항아리, 그릇의 모양)’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저마다의 개성을 간직한 그 매력에 흠뻑 취하게 된다. 특히, 무늬를 표현한 방법과 자기의 생김새가 더욱 친근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유물과 민속품,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모아온 기념품, 수석 등 어느 정도 컬렉션이 갖춰지자, 김 동창 부부는 수집품 보관과 진열을 위해, 살고 있는 한옥을 인간문화재급 대목장의 손길로 개조해 집 안 대부분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부부가 잡잘 공간 만 겨우 남긴 채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것은



김춘자·이세민 부부의 기증 유물을 전시 중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기증전시관 내부

개인 박물관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유명 개인 박물관들을 두루 견학하고 정부의 관련 기관에 문의도 하면서 여러모로 알아봤지만, 개인이 박물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는 판단이 섰다. 게다가 당시 한창 여행을 다니던 김동창 부부에게는 박물관에 얹매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세계 120여 개국을 방문한 이들 부부의 여행 경력은 여행 전문가 못지않다.

수집가 부부에게 한평생 정성 들여 모아온 유물들

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할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김동창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그동안 유물을 수집하고 소장하면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을 이제는 더 많은 동창, 후배, 후손들, 나아가 고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 갔다. 그러면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의미를 띤 ‘기증’의 절차를 밟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동창의 부군 이세민 선생은 “유물을 통해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는 기쁨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유물들을 잠시 보관만 했을 뿐, 돌아갈 때는 기증하는 것이 맞다”고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아내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사랑의 결실

사실 어떤 유물이 박물관에 수집되었다고 해서 모두 소장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증 자료의 형상과 내력을 살펴보고 박물관 성격에 맞는지 타당성도 검토하고 진위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기증 목록을 정하게 된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관계자는 “2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증자 부부를 방문하며 기증품을 정하고 인수하고 목록을 만들어 재검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121점의 유물들이 지

기증 유물 '청자철화 국화당초문 매병' 옆에 선 김춘자 동창





기증 유물 121점은 고려 청자에서부터 조선 백자, 시대별 민속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역사적 가치가 뚝넓고 방대하다

금의 기증전시관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935년 개관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는 박물관 컬렉션의 간판이자 조선 시대 철화백자 가운데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백자 철화 포도문 호’가 있다. 1960년대 유물 수집가로 알려진 김활란 전 총장이 구입해 기증한 이 백자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김활란 총장의 ‘백자 철화 포도문 호’ 구입 스토리가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모교 박물관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고자 애썼던 당시 김활란 총장은 자칫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뻔한 이 백자를 1,500만 원(당시 최고급 청자나 백자가 250만 원 안팎)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기꺼이 내어 구입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모교 박물관의 도자 컬렉션이 해외에서도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국보 및 보물급의 품격 있는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게 된 것은 선배들의 이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번 유물 기증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 부부가 이화 역사에 동참하고 이화 발전에 일조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김 동창은 기증처를 남편 이세민 선생의 출신학교인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아닌 이

화여자대학교박물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모교 박물관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를 한 눈에 알아보는 관장님의 높은 안목, 그리고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들의 열의가 한몫했다”고 밝힌다. 그리면서도 남편의 학교에 기증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는 김 동창은 남편 이세민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덧붙였다.

“남편이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영구 보존에 대한 믿음과 정성스러운 운영에 감동받은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육십 평생을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한 아내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사랑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고맙고 감사할 때이지요.”

김 동창은 마지막으로, 기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준 모교 박물관 관계자들과 약대 동창들, 그리고 기증식을 성대히 치르도록 앞장서 준 조진희(제약 75) 동창, 잔손이 많은 가는 행정적 일치리를 옆에서 도와준 막내딸과 유물 기증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고 응원해 준 자녀와 손주들에게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웠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연극치료 선구자 박미리 동창

최적의 좌절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연극치료는 용기, 자기성찰, 참만남, 최적의 좌절, 나를 만나는 연극, 두려움, 신비, 사랑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한국연극치료협회 광고 동영상. 32초의 짧은 동영상에 담아낸 멘트와 서로를 향한 웃음 소리가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극과 치료의 만남이면 연극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과정 속에 자기 성찰이 있을 것이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비한 체험 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연극치료가 무엇이기에 최적의 좌절이며, 사랑이라는 것일까? 핵심으로 접근해 가니 중심에 설립자, 박미리(불문 79) 동창이 있다. 한

국연극치료협회 회장이자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박 동창은 지금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오롯이 ‘연극치료’ 확장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있다.

불문학 박사가 연극치료를 하기까지

모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동창은 일련의 과정을 밟으며, 전공과목 중에서도 희곡을 가장 마음에 두었다. 「Claudel 희곡 작품의 주제와 연극 성」을 박사논문으로 발표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희곡에 대한 박 동창의 열정은 프랑스 파리10대학 불문학 박사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극작자인 폴 클로델을 온전히 만나고 싶었기에 용감하게 진로를 선택했다. 그의 작품을 깊이 만나면서 희곡에 대한 박 동창의 애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희곡에서 세상을 만나고 사랑을 만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학과 교수가 되고, 연극치료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길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연극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 열망이 통했을까. 귀국 후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임용되고, 대학원에 연극치료학과 석사 과정 및 예술치료학과 박사과정까지 개설했다. 2003년 한국연극치료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를 통해 연극치료의 발전과 연극치료사 양성에 앞장섰다. 생각지도 못한 진로가 펼쳐졌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박 동창의 진로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화, 정확히 말하자면 이화·동창이 있었다.

세상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해준 첫 사건은 영아원 봉사였다. 박 동창은 대학생이 되고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학과 정영숙(사복 75) 동창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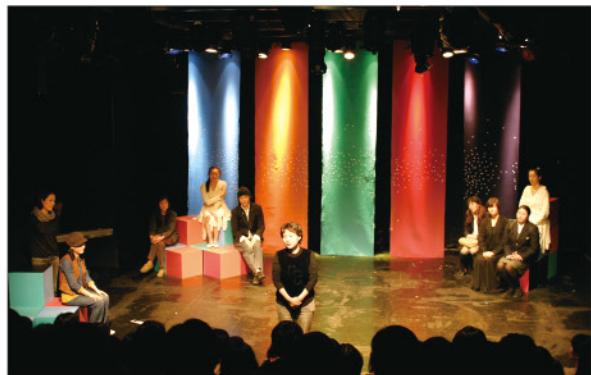
“대학 졸업 후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정영숙 선배

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갔던 곳이 이제 막 태어나서 3세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영아원이었어요. 그 영아원 봉사를 하면서 부터가 달라진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 진로를 바꾸려고까지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봉사자의 길을 걷고 싶었죠.”

그때부터 박 동창은 봉사자로서 뜻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연극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이론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줄곧 헛헛한 감정을 느끼고는 했다. 그러던 중 마침 한 보육원으로부터 아이들이 연극 경연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맡아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아이들이 단순한 연극 지도를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 동창은 결심했다. “안 되겠다. 연극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보육원을 시작으로 연극 지도 봉사를 시작한 박 동창이 그다음 찾아간 곳은 특수학교였다. 이곳에서 박 동창은 또 한 명의 이화 동창을 만났다. 당시 만난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동창은 이후 귀한 인연이 되었다. 한 동창은 현재 연극치료협회 협회장까지 맡고 있다. 한 동창의 도움으로 박 동창은 연극 지도를 넘어 보육원 및 특수학교 아이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었다. 점점 영역을 넓혀 후원을 통해 특수학교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족들과 함께 캠프를 열며 그 과정에서 연극치료사들을 양성했다. 그러는 동안 연극치료연구소를 차리고 밤새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었다.

박 동창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역 노숙자들과 다시 한번 연극을 올리게 된 것. 노숙자들과 연극을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박 동창도 박 동창의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지만



2006년 첫 번째로 한 치료적 공연 〈철수영희 1318〉

용기를 냈다. 그들을 돌보는 신부님조차 그들을 ‘깡패’라고 표현했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처음 가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죠. 그들은 길 위의 철학자더라고요. 세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함께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 거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나의 달란트 ‘용감함’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용감함’이더라고요. 그걸 연극치료를 하면서 알았어요. 다들 말하는데 저는 연극치료를 해야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님이 저한테 이 길을 열어 주신 건 진짜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있던 박 동창은 석사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불문학 전공이었던 스스로에 대해 ‘내가 연극치료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불문학 박사인데 주제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에 곧장 영국과 미국에 직접 워크숍을 받으러 갔다. 그리고 미국에서 워크숍을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었다.

용감하게 도전하고 부딪혀 뜻하던 석사 과정은 물론 박사 과정, 연극치료협회까지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 박 동창은 협회를

만들며 태어나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놀라워요. 협회도 그렇고 학교에 대학원을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연극을 매개로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박 동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은 무엇일까. “치료는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실제로는 연극심리상담사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치료를 잘하는 연극 ‘치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치료 마인드가 있을 때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사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중상을 고치는 게 핵심이죠. 연극치료사는 얼음 칼을 들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순간 그들의 마음을 찔러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녹아야 하는 거죠. 그들의 중상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생애도 연극치료와 함께할 것이라는 박 동창의 목표는 연극치료의 대중화이다.

“제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 천당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 남은 생은 연극치료로 갈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대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일반 세상을 향해 연극치료를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번이라도 무대에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미술처럼 모든 사람이 연극을 하고 연극에 치

부산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환자들과 진행한 연극치료 작업



관객 참여형 치료적 공연에서 관객과 만나는 박미리 동창

유의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왕이면 일반적인 연극도 좋지만 좀 더 자기를 만져가면서 하는 이런 연극이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 박 동창은 연극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이다. “연극치료에는 힘이 있어요. 연극의 도구는 오로지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핵심이고 그 과정에 자신을 투사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표현이 안 돼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연극치료가 정말 많이 대중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극 아카데미에 일반 여성들이 와서 저랑 같이 연극으로 놀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대 동창회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치유해 온 박미리 동창. 또 이를 전문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온 그 길에는 박 동창의 열정과 온정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그 길이 박 동창의 바람대로 더욱 널리 뻗어나갈 수 있기를,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극 무대에서 만난 개인의 과거 좌절들이 실패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최적의 좌절이었음을 객관화하는 과정,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연극치료의 힘이라는 것을 공감하기에 더욱 기대한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대형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희 동창

따뜻한 친화력, 열린 공감으로 법을 통해 삶의 온기를 전하다



‘여성 법조인’이란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에 머물던 여성 법조인 비율은 20여 년 만에 3분의 1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성 법조인 30% 시대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최초의 여성 대표가 출현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이영희(법대·법전원 94,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동창이 바로 이 ‘최초’ 수식어의 주인공이다.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최초’를 이뤄낸 이동창을 만나 지나온 여정과 포부를 들어 보았다.

강원도 화천, 시골에서 키운 법조인의 꿈

법대·법전원 90학번인 이 동창은 1997년에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9기)을 졸업한 2000년에 당시 신생 로펌이던 법무법인 바른의 공채 1기로 입사해 줄곧 25년을 바른과 함께 성장해 왔다. 입사 11년차이던 2011년에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고, 2018년 이사진인 운영위원을 거쳐 2022년 로펌 업계 최초의 여성 경영대표로 선출되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강원도 화천, 시골에서 컸어요.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법조인을 꿈꾸셨던 분이라 저희 다섯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여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여성 법조인이 드물던 시절이었음에도 아버지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법대에 진학했다.

“저희 형제가 딸만 다섯인데 맏이인 저를 포함해 넷째와 막내까지 세 명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영심(이대 법대·법전원 03, 사시 52회, 법무법인 선희) 변호사와 이영실(한양대 법대, 사시 50회, IBS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 동창의 동생들이다. “동생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직장도 서초동, 삼성동이라 특별한 일 없으면 출퇴근을 같이해요. 출퇴근하면서 세 자매가 수다도 많이 떨어요. 같은 일을 하니까 얘깃거리도 넘쳐나고 서로 이해도 잘되고, 힘이 많이 되죠.”

“법과 소송에도 온기가 담겨야 해요”: ‘큰 귀’와 ‘열린 공감’으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동창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법률을 다루고 소송과 재

판을 하는 게 제 일이지만,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절망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해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움을 전하시는 경우 가꽤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더 보람이 크죠. 1심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오게 됐을 때, 그 오랜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힘든 상황을 함께해 왔기 때문에 뿌듯함과 보람이 클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소송 과정에서 문제해결자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 그들의 고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동창이 말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다.

스스로를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동창은 그 무엇보다도 ‘잘 들어주는 변호사’이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억울한 일을 맞닥뜨렸는데, 서류만으로는 그 사람의 억울함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복잡한 사정을 서류가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류에 나와 있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간접사실들이 있어요. 의뢰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찾고 풀어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야죠.” 때때로 대여섯 시간

씩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다고 했다. “들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되짚어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다음 날 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실에 접근해가는 거죠.” ‘종이’에는 나오지 않는 이면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행간을 짚어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하고 따뜻한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바른과 싱가포르 로펌과의 MOU 현장에서

이 동창은 “송무는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것에 앞서, 우리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풀어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소송 중에 억울함이 극에 달해 새벽 1시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도 있었어요. 그 고통에 귀를 열고 공감하고,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서 설득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만나는 의뢰인들의 삶과 사건에 얹힌 내막을 깊이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 그 과정에서 충분한 관심과 공감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이 동창이 변호사로서 소중히 여기는 덕목이다.

다양한 사내 모임으로 조직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2022년에 경영대표(인사, 노무, 조직관리 담당)로 선출된 이 동창은 임기 3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

에 있다. 경영자로서 보낸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묻자 이 동창은 큰 웃음과 함께 “하! 힘들었습니다!”라는 첫마디로 답을 시작했다. “사건담당 변호사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역량과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맡은 사건만 잘 해내면 됐지만, 회사 경영은 다양한 사람들, 집단들을 설득하고 양보와 이해를 끌어내야 해요. 바른에 소속된 변호사가 260여 명인데, 이분들의 커리어 배경이 법원, 검찰 등 다양하고, 법조 이외의 여타 분야에서 영입된 자문단까지 구성이 다채롭다 보니 다양한 컬러를 잘 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조직 내부의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 이 동창은 지난 3년간 다양한 방식의 사내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회사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구성원들끼리 서로 잘 모르고 지내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서로 잘 알아야 효율적인 역량 배치와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고문진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모임’, 석 달에 한 번씩 ‘파트너 변호사들의 교류모임’, 연수원 40기 이후의 젊은 변호사들이 소통하는 ‘화투모임’, 외국 변호사들과의 점심 모임인 ‘삼수모임’도 매월 하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 수임 전략, 협업 방향,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목요 세미나’ 등이 있어요.”

로펌 업계 내 젠더 간 직무 장벽을 허물다: ‘여직원’은 왜 ‘여직원’이어야 하지?

지난 3년간 경영대표로 일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업무 성과가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 이 동창은 로펌 업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여직원’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을 열어주고 ‘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관행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펌들만의 업무 체계와 조직 구조가 있어요. 일반 직무 가운데 변호사를 보조하는 비서 직무는 ‘전통적으로’ 여성들만 해왔고, 내부에서는 ‘여직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왔어요. 한번 ‘여직원’으로 들어오면 계속 같은 일만 하도록 돼 있었죠. 연차가 쌓이면 대리, 과장으로 직급은 올라가지만, 수임 계약이나 클라이언트 관리 등 여타의 핵심 업무로 이동하거나 관리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비서직=여성’이라는 직무 장벽을 지켜보면서 ‘왜 ‘여직원’은 10년, 15년이 지나도 ‘여직원’만 해야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엔 갑론을박도 많았고, 모두 낯설어 했어요. 너무나 오래 당연시 되어온 관행에 ‘낯선’ 변화를 시도한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내부의 동의를 구하고 작년 겨울에 최초로 15년 경력의 일 잘하시는 ‘여직원’을 송무지원팀장으로 배치했어요. 아주 잘해오고 계세요.”

이러한 시도는 바른이 설립된 이후 최초라고 했다. “조직을 개편하면서 더 이상 ‘여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비서 또는 스태프라고 칭하자. 그리고 남성 직원도 비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이 동창은 어떤 조직이든 인력의 순환이 있어야 하고, 능력과 비전에 따라서 흘러야 한다고 말한다. “남녀 구분 없이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하고, 저처럼 여성 대표가 나왔듯이, 일반 직원에서도 여성 국장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동창의 점화로 시작된 이 변화의 불씨가 앞으로 우리 사회 로펌 업계 전반으로 번져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친화력과 공감의 리더십: 목욕탕에서 옆사람에게 먼저 말거는 사람!

경영자로서 어떤 색깔의 리더십을 지향하는지 물었다. 이 동창은 가장 먼저 ‘잘 듣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들어야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의뢰인도 직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다가가기 쉬운 편안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 동창이 가진 이러한 편안함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친화력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주변에서 친화력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목욕탕에 가면 옆에 앉은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인터뷰 내내 푸근한 웃음을 멈추지 않는 이 동창을 보면서 ‘목욕탕에서 먼저 말거는’ 친화력의 비유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 동창은 회사의 좋은 친구들이 바른을 떠나지 않고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경영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후배 변호사들이 힘들어 하거나 하면 그냥 제가 살면서 겪어온 시행착오와 ‘흑역사’를 얘기해 주곤 해요. ‘내가 초년차일 땐 너보다 한참 못했어. 문 닫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너만 그런 거아니야. 그런 시절 다 거치는 거야. 지금 겪는 과정, 너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야’라고 하죠.”

실수하고 깨지면서 다져온 성장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후배들과 나누면서 그 모든 경험의 ‘마디들’이 튼튼한 대나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전하고자 한다. 살아오면서 선배들이 들려준 경험을 통해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이영희 동창은 “제가 선배들한테 받은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라며, 회사가 아니라도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바른-4차 산업대응팀과 함께

가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고 했다. “인터뷰 요청이나 강연 등이 있으면 절대 사양하지 않아요. 대학 동기이자 법대 교수인 친구가 종종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와달라고 하는데, ‘힘들어도 갈 거야. 어떻게든 시간 빼볼게!’ 하죠.”

이화의 선물, 이화인의 DNA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들

현재 바른에는 이 동창을 포함해 12명의 이화 동창들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로펌에서 여성이나 파트너로 성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바른의 파트너급에서 여성 변호사는 15% 정도이고, 이화 동창은 저와 신현정(법대·법전원 02, 사시 43회) 변호사 두 명뿐이에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대 동창들이 늘고 있긴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대표가 되고 나서 이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라고 우스갯소리도 하세요.” 이 동창은 이대 동창이라서가 아니라 채용기준에 부합하고 잠재력 있는 우수한 여성들을 선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회사나 법조계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대 졸업생들은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 대충이 없고 다들 너무 잘 짜져! 무서워!’ 이것 역시 우스갯소리 삼아 하시는 이야기죠. 저 역시 이런 얘기에 공감해요. 우리 이대 동창들이 보여주는 근성이랄까, DNA랄까,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한 코멘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충 넘기지 않는’ 철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일은 짚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따져야 할 땐 따질 수 있는 ‘무서움’은 꼭 필요한 거죠.” 이 동창은 이러한 자질들이 이화에서 성장하면서 길러진 것이라고 믿는다. “여대이기 때문에 축제준비도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따로 없이 그냥 우리가 다 했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도록 훈련받았고요. 맙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나갈까 고민하고! 그런 자립, 독립의 DNA가 이화 동창들에게 강한 것 같아요.”

이화의 ‘DNA’와 더불어 이화에서 맺은 인연 또한 이 동창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고시 공부할 때 법학과 90학번 다섯 명이 스터디팀 꾸려서 함께 공부했고 다행히 우리 ‘이대 5인방(김선주 변호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 이진화 부장판사)’ 모두 나란히 사시에 합격했어요. 고시촌에서 힘든 시간 같이 보낸 친구들인데,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굵직굵직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5인방 외에도 친하게 지내온 동기들과도 자주 만나요.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속이야기들 주고받으면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숨구멍 같은 친구들이에요. 편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채 서로를 보여줄 수 있는 30년 지기들이죠.”

“일이 너무 재밌어요” :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소명을 실천하다

이 동창은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영자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다. “바쁜의 모든 직원이 아침에 눈떴을 때 회사에 오는 게 즐거운,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에 출마할 때 출마의 변이 이거였어요.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또 지금 로펌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도 많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잘 뛰어넘고, 조금 더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도 거의 자정이 넘어서 퇴근할 만큼 여전히 야근이 많다는 이 동창. 그럼에도 일이 정말 재밌어서 기꺼이 잘 버텨낼 수 있다고 했다.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여러모로 부족한데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600여 명에 이르는 학생 기자 배출 70년의 전통을 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다



200여 명의 《이대학보》 학생 기자 출신 동창들이 참석한 창간 70주년 기념식

“이화 안에서 출발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데 힘쓴다.” “기성 권력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대학 문화를 지향한다.”

이화여대를 대표하는 학생언론매체인 《이대학보》의 윤리강령이다. 이어 언론 자유 수호를 필두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오보 정정과 반론권 인정,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취재원 보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표절 금지, 기자의 품위, 갈등 및 차별 조장 금지 등 9개의 실천 요강과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밝히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화 안에서 출발, 여성

에 대한 사회적 차별 타파,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자세, 주체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2004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이대학보》 윤리강령은 1954년 2월 12일 창간하여 50주년을 이어온 전통을 토대로 탄생했다. 초대 주간인 이석곤 교수의 지도로 1대 학생 기자 8명이 만든 창간호를 통해 “《이대학보》의 창간은, 인류의 지식을 보존하고 그 유산을 증진하며 나아가서는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도리요 또는 민족의 궁지를 양양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당시 김활란 총장이 제시한 비전의 또 다른 선포이기도 하다.



장명수 이사장

은 한국전쟁 이후 신촌캠퍼스로 복귀,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던 그때 결실을 맺었다.

“3학년 2학기 말 어느 날, 영문학 개론 강의를 맡은 이석곤 교수님은 학생 몇 명을 호명해 소집하고 신문 내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자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도 없이 우리는 5대학 18개 학과를 분담해 기삿거리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학생식당이었던 그린하우스(옛 영학관)에서 기사를 쓴 후 선생님께 제출했다. 모인 기사의 표제와 편집은 선생님의 몫이었고, 조판과 인쇄는 서울신문사에서 했다. 타블로이드 4면짜리 《이대학보》 창간호의 조판이 겨우 끝났을 때 사건은 발생했다. 기사가 모자라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지금도 《이대학보》 제1호 1면, 유달리 큰 사진을 보면 우리의 난감했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대학보》 기자(이하 기자) 1기 김승숙(영문 55, 영문과 명예교수) 동창의 기고(2004년 3월 1일, 이대학보 1237호)를 보면 창간 당시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후 《이대학보》는 ‘학내외 소식을 보도·논평하고 학생들의 교양 함양과 학구생활을 도우며 학교·학생·교직원·동창·학부모 및 일반 독자 상호간 유대강화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면서 명실공히 이화를 대표하는 학생언론매체로서 70년 동안 이화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초창기에는 출판국에 소속돼 타블로이드 판, 종서(세로쓰기)로 부정기적으로 발간해 오던 《이대학

**가로쓰기로 혁신적인
탈바꿈, 출판문화 이끌어**
『이대학보』 창간 움직임은 종합대학 인가를 받았던 1946년부터 시작됐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루어지던 창간

보》는 1955년부터 배대판 4면 체제로 변경, 1960년부터는 4면으로 매주 1회 정기 발행했다. 1972년부터 출판국에서 독립, 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



김은미 모교총장

체제를 변경한 《이대학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비상했다. 502호(1974년 3월 8일자)부터 가로쓰기를 단행, 월 1회 8면으로 중면 발행을 시작했다.

획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로쓰기의 시작은 한자였던 《이대학보》 제호를 한글로 바꾸는 시도와 함께 일어났다. 607호(1978년 3월 10일)부터 격주 8면으로 늘리고, 669호(1980년 9월 15일)부터 매주 8면으로 중면했다. 1988년도 이후 매월 둘째 주에 12면으로 중면하는 8-12-8-8면 체제로 정착했다.

1993년에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신문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사에 작성된 모든 사실을 보도 전 재확인하는 팩트체킹데스크(Fact Checking Desk · FCD) 제도를 국내 언론 최초로 운영하며 저널리즘적 발전을 이뤘다. 가장 최근엔 대학언론을 대상으로 한 ‘시사HN 대학기자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저널리즘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여성 문화와 지성화를 중심으로 대학 문화 선도

“여성 문화라든가 여성의 지성화 암흑기였죠. 그 때 우리가 열중했던 것은 대학 문화의 창출 그리고 청년 여성 문화의 창출, 여성 문화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있어요.”

기자 6기 이종선(국문 62) 동창의 회고처럼 학보사 기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목표를 지향하는



이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시상도 있었다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기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했다. 재학생들의 창작 의욕과 학술연구 기풍의 진작을 위해 1960년 7월, '중편소설 및 현상논문 모집'을 정례화하면서 여성 문화와 지성화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성 문화와 지성화에 앞장서던 《이대학보》가 정치·사회 이슈에 민감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64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때였다. 이때 기자 11기로 활동하던 이경순(키미부 67) 동창은 '굴욕, 한일 외교의 이화 분노' 기사를 작성하고,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외압에 의해 '굴욕' 두 글자를 빼어 버리고 발간했던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또한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시절, 당시 김옥길 총장은 학생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학내 문제만큼은 언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었다. 기자들의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은 1970년대 여성의 성 상품화로 왜곡되어지던 '메이퀸' 폐지 여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는 우리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했어요. 특히 여성 이슈에 관한 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내부에 응축되어 있던 메이퀸 이슈를 폭발, 폐지를 관철시켰지요.” 기자 21기 김영심(사회과교육 77) 동창은 “《이대학보》는 당시 대학 언론의 기수라는 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사회 이슈 현장을 담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정점을 이루던 시절에는 ‘호헌철폐’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또한 1990년대 노동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등 치열한 사회운동을 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변화의 시기였죠.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고 강제 철거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철거촌 현장에 가서 취재했을 때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자로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이대학보》는 여성으로서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라 소외 계층까지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었죠.” 기자 56기 김서현(물리 99) 동창의 말처럼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면모도 보였다.

이후 2000년대에는 등록금 투쟁의 현장을, 대형 쇼핑몰 사업화에 대한 학습권 침해 등을 다루며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학내 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이슈를 발굴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텅 비어 버린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21세기의 《이대학보》는 더 이상 독자에게 특정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화의 여성들을 보여 주었다. 또 사회적 제도 안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여성이 아닌 제도권 밖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모습도 다행다. 나아가 1인 가구, 비혼 공동체, 비혼 커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보여 주었다.

학생과 기자 사이,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열정

1983년 9월부터 제도적으로 부주간제를 두어 주간을 보좌하게 했다. 1984년 3월부터 학생 편집국장 제가 실시되는 한편, 부 체제가 확립돼 취재부-논설부-학술부-특집부-문화부-사진부로 구분했다. 1989년에는 편집국의 부서 개편으로 여론매체부를 신설, 편집 제작에 학내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매체부는 2003년에 인터넷여론부로, 2004년에 인터넷기획부로 이름을 바꿔 현재 인터넷 《이대학보》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1990년부터 학보사 편집국에 차장제를 도입, 편집국장-부장-차장-정기자-수습기자 체계로 학보 제작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1992년부

터는 학생 기자가 논설회의에 참여해 학생자치신문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1958년 가을부터 시작된 학생 기자 공채는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다가 1982년부터는 매학기 선발하고 있으며 112기에 이르고 있다.

《이대학보》는 1995년 전국 주간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신문 콘테스트(보도, 편집, 기획, 학술, 문화’ 문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연이어 1996년에는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심에는 모두 학생 기자들이 있었다. 학생 ‘기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서약하고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을 이화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앞장서 왔던 《이대학보》 기자들. 학생 기자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인지, 학보사로 출근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열정으로 가득한 청춘이었다. 지난 70년 역사 동안 26명의 주간과 함께 활동했던 학생 기자들은 600여 명에 이른다. 공채가 처음 시작된 1950년대 기자 생활을 했던 6기 동창부터 2024년 1월 퇴임한 108기 동창까지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박성희 교수)는 《이대학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일(토)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커밍 포워드(Coming Forward)’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커미부 64, 《이대학보》 기자 7기)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역대 주간교수 그리고 《이대학보》 학생 기자로 활동했던 동창 등 200여 명이 참석해 70년의 전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이대학보》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

정리·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대학보》 기자 38기)/

자료 제공·《이대학보》



101동 승민 기도실

이화의 기도처 순례 / 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

함께하는 ‘한우리’ 공간에서 안식을 찾다

팔복동산 옆에 자리 잡은 한우리집 기숙사는 지방 출신 이화인과 국가고시 준비생이 머무는 공간이다. 1999년 2월에 개관한 한우리집은 학부생용 101동(구 A동)과 법대·법전원 전용 102동(솟을관) 두 동의 건물로 처음 개관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학부생용 103동(구 C동)을 추가로 개관하여 이곳에만 총 3개동 약 1,300여 명의 이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101동과 103동은 입사 자격을 갖춘 학부 재학생 지원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102동은 국가고시 준비생을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



이화의 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동창의 후원으로 지어진 101동 승민기도실

이화인의 후원과 정성으로 마련된 두 개의 기도실

한우리집 기숙사에는 두 곳의 기도실이 있다. 먼저 1999년에 개관한 101동 지하 105호 기도실은 ‘승민기도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곳은 하늘나라로 먼저 간 자녀 승민이를 추억하고, 이화의 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박인자(영문 63) 동창이 후원한 곳이다. 한우리집 개관과 함께 1999년 2월 23일 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기도실은 작고 소박하다. 책상이나 의자도 없고 3단 책장과 피아노가 유일한 가구다. 앉은 키보다 낮은 소반 주위로 방석이 몇 개 놓여 있는데 이곳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작은 십자가



103동 기도실

가 바닥에 놓여 있지만, 십자가와 닮은 형상물이 벽을 따라 조각되어 있어 마치 팔을 뻗어 주님이 굽어 살피고 있는 아늑함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어린양이 된 우리를 가만히 품어 주실 것만 같다.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타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공간이 평화와 휴식이 될 듯하다.

2016년에 문을 연 또 다른 기도실은 103동 지하 177호에 마련돼 있다. 101동에서 연 결된 구름다리를 건너 신관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면 역시 작고 소박한 기도실이 나타난다. 기도실 앞에는 ‘십자가 제작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라는 작은 나무 현판이 붙어 있고, 조형예술대학 조영식 교수와 구본희·서현진 학생에 대한 감사의 글귀가 적혀 있다. 101동 기도실을 후원한 박인자 동창처럼, 103동 기도실에도 이화인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이 공간도 나무 의자 두 개 외에는 특별한 가구가 없다. 작은 십자가와 기도수첩, 찬송가가 놓인 단출한 공간, 그래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소박한 십자가와 찬송가가 놓인
103동 기도실

이화와 친구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

한우리집 기숙사의 ‘한우리’는 ‘크다, 함께하다’는 뜻으로, 당시 이어령 석좌교수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화·동창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후원과 기도로 만들어진 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에 걸맞는 이름이다. 이화와 친구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평화와 안식을 느끼길 기도해 본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유익이라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라는 찬양이 기억납니다. 알바니아 주일예배는 날씨, 명절, 시기에 따라 인원수의 변동이 큰 편인데, 신기하게도 비바람과 우박이 몰아치는 날에는 교회가 꽉 차고, 청명한 날에는 자리가 텅합니다. 아마도 날씨가 흐린 날은 기분이 울적하여 은혜를 구하며 교회에 나오고, 날씨가 좋은 날은 가족들과 여행을 가느라 그런가 같습니다.

한 번은 엔드리 목사님이 “아파서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며,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이 생기게 해달라며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나 직장이 생기면 교회에 발길을 끊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다 낫게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때문인지 병 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슬람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많은 ‘세상의 빛’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간절하고 충만한 것 같습니다.



교회-용납과 생명의 공동체

‘블레리나’라는 자매는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1년 전 처음 보았을 때는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고 눈빛이 멍하고 때론 잠옷 차림으로 교회를 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꾸준히 주일예배를 나오고, 그 후 여성 모임, 기도 모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부터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잠옷 대신 멀쩡한 옷을 입고, 대화를 시작하더니, 기도회 시간에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지난주에는 어눌하지만 대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목사님의 아버지인 첼로 할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제 남편과 늘 함께 있는데 그때가 보호자인 아내(목사님의 어머니)가 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본의 아니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셔서 오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환대하고 장난치는 어린이들에게 바로 앉으라고 호통도 치며 보조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의 빛’ 교회가 무질서하고 미숙하게 여겨져, 교회 문 앞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고통과 어둠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회복되는 것, 공동체를 통해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아주 작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우습게 여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블래리나 자매가 저와 같은 자들에게 교회의 가치를 깨우치는 중인이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첫 제자준하의 독립

4개월 갓난아이로 저희 부부와 함께 나온 준하는 든든한 동역자이자 첫 제자입니다. 부모님들이 말안 듣는 자식에게 “꼭 너 같은 거 낳아서 키워 봐라” 하시는데, 딱 저희 부부를 닮은 난이도 높은 훈련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학부모 면담을 가서 “준하에게 이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고칠 수 있도록 좀 책망해 달라”고 하면, 단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완곡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기억나며,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내 자식은 내 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미워하고 상처받았다고 할 것이라는 사단의 거짓을 거부하며, 자식의 영혼을 위해 그 안의 악과 싸워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몇 년간 참 열심히 준하와 싸웠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했던 저희의 양육 방식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었는지 인내심 없는 부모의 성질머리였는지는 조금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무 살이 되어 며칠 후 한국으로 떠날 준하의 인생이 그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양육자, 훈련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여 주시는 다른 관계들을 통해 그가 훈련될 시기가 됐음을 실감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데 쓰는 애끓음이 선교지의 한 영혼에게 쏟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 죄책감이 몰려온 적이 있는데, 자식을 키워낸 아비의 그 마음으로 똑같이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라는 선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에게는 제자 훈련의 선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첫 제자인 준하에게 저희의 온 마음을 쏟으며 짙은 소리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붙여 주시는 영혼들에게 저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독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준하라는 존재는 저희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글·최효정(행정·사회복지 01)



기·도·해·주·세·요

1.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선한 것(사역, 관계)보다 우선하게 하소서.
2. ‘세상의 빛’ 교회에서 현지인 담임목사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3. 맡겨진 심방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심령을 격려하고 잘 세우게 하소서.
4. 작은 일에 충성하여 신실한 종 되게 하소서.
5. 독립하는 준하가 성실하게 신앙공동체, 진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동창회 소식

— 1 —

‘이화인의 밤’ 티켓판매 활성화 논의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선언과 찬송가 90장 봉송, 기도에 이어 6월 정기 임원회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각부 및 대학(원) 보고가 이어졌고 안건토의로 들어갔다.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9월 ‘대바자회’ 준비 상황을 알린 데 이어 하반기 중요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에서 사상 예정인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을 다시 한번 임원들에게 고지한 데 이어 티켓 판매 경로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선배들이 티켓 구매 경로를 몰라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티켓을 판매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학과의 티켓 판매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을 보류 중”이라고 알렸다. 그럼에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다수면 진행하겠으나 단과대

학이나 학과에서 우선 티켓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 총동창회 홈페이지에는 나중에 올리겠다며 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금진(영교 80) 사범대학 회장은 “선배 동창들이 학과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학과 및 홈페이지 양쪽에서 판매해도 티켓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티켓 판매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 외에도 행사를 널리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안경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은 티켓 구매 시 “동창 본인만 살 수 있는지 또는 가족까지 포함인지, 그리고 온라인 구매 시 동창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의했다. 이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2022년 대강당에서 ‘이화가족이 이화를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화인의 밤’을 개최했을 때는 가족들도 포함했으나 호텔에서 하는 경우는 동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표를 사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승주(조소 87) 조형대 회장은 “티켓 가격이 비싸고 판매가 어렵다고 해도 각 과별로 다 소화해 냈으나 그 과정에서 학과 동창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하며, 홈페이지에 일부 오픈하거나 티켓 분량을 줄여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미리 티켓량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금진 사범대 회장이 “행사 경품의 가격을 떠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테이블 인원이 다 함께 나누어가는 품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범대 회장단의 의견”을 전하자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작년에 그런 선물이 있었다고 답하며 총동창회 기념품 이외에도 협찬이 많을수록 많은 동창이 가져갈 수 있으므로 협찬 계획이 있는 업체를 알려 주면 사무국에서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단과대학 동창회장들이 특별히 유념하여 각 과의 동창회장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고, 70~80대 이상의 원로 선배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미형(의직 77) 생활환경대 회장은 “학과 동창회장도 2년마다 바뀌고 간사도 바뀌면서 동창회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로 선배들이 서운해 한다”고 말하고, 생활환경대를 상징하는 노란색 우편물 봉투를 최근에 다시 제작하여 선배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행사 참석 여부를 떠나 학교 소식을 접하게 되어 선배들이 기뻐한다고 알리며 주소록을 정비하고, 선배들도 나름대로 모임이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각 단과대 행사 시에 미리 홍보하거나 뉴스레터를 만들어 일정을 게시하면서 거기에 총동창회 행사도 기입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장미현(건축 00) 공과대 회장은 “공대의 경우 신규 학과들은 동창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학과들이 티켓을 받아서 판매할 때마다 이 가격으로 홍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비용 절반을 동창회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판매하는 과도 있을 정도로 후배들은 남의 일처럼 여긴다”고 설명하고, 요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동창회 활동에 부담을 느끼므로 총동창회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령대 별로 맞춤형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경숙 고문은 “‘이화인의 밤’에 한번 다녀가면 궁정적인 반응이 나오므로 나이에 관계 없이 이화의 정신과 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이화의 힘이 여기에 있구 나를 직접 느끼도록 하고 다목적의 홀륭한 페스티벌이 되도록 회장들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각 학과에 맞는 접근방법을

고민하여 티켓 판매를 해주기를 부탁하고 총동창회 도 미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희 법대·법전원 회장은 소위 김준혁 의원 사건에 대해 법대·법전원 동창회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그와 관련된 법적 후속 조치들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3월 초에 신입생과 관련된 모교 홈페이지 테러가 있었는데 IP 주소를 파악하여 고소·고발 건이 진행 중이며 대학의 학생 보호 의무가 강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화여대가 여성학의 효시인데 성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고, 가시화되면 다른 동창회장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안내했다.

기타 의견으로,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감사 친양예배를 매년 5월 둘째 화요일에 개최했는데 처장회의와 각 단과대학의 동창 모임이 예배 날짜와 겹치는 일이 많아 내년부터는 5월 둘째주 월요일에 열린다고 안내했다.

— 2 —

신입 동창들에게 기념품과 총동창회 안내문 전달

총동창회는 8월 30일(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대강당 아래 광장에서 2024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신입 동창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포스트잇과 카드, 졸업 축하 및 총동창회 안내문을 동봉한 기념품 500부를 준비하여 신입 동창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며 졸업을 축하하고 사회 진출을 격려했다. 또한 총동창회 입회를 독려하며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신입 동창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한 총동창회

행사를 안내하는 등 훈훈한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한은주(특교 79)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백기엽(특교 00) 서기가 참여한 이 행사는 올해 전기 학위수여식(2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이다.

— 3 —

'아름다운 이화인' 상선정위원회 구성, 이경숙 고문 연임 통과

2024년 9월 정기 임원회가 9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9월 10일(화)에 성공적으로 끝난 대바자회 평가가 있었다.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회장은 “기록적인 더위에, 인문대에서는 바자회에 참석한 인문대 각 과 동창들에게 미리 주문받아 물, 도시락, 명찰, 앞치마 등을 지원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암막 천막 설치 혹은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내년은 추석이 10월이라 바자회는 추석 전인 9월 말에 하게

되어 올해보다는 늦춰질 것”이라고 밝히며 “동창들이 더워서 고생했지만 표정이 즐거워서 감동이 컸다”고 답했다.

황미경(약학 86) 약학대 회장은 “약대 부스가 실외기 쪽에 위치해 너무 더웠고, 배수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물건을 놓을 수가 없었다”며, 추첨으로 부스 자리가 결정됐지만, 공교롭게 약대는 작년과 같은 장소가 배정되었는데 그런 경우 장소 변경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약대와 음대가 실외기 쪽에 배정이 돼 너무 더웠을 것”이라며, “자주 찾아가서 확인하고 물도 많이 드리며 신경 썼지만 무척 죄송하다”며 내년에는 건물 공사로 인해 장소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미경 약대 회장은 “약대 동창 두 분이 생전에 1억 원씩 기금을 약정했는데, 작고한 이후 동창의 딸과 부군이 각각 남은 기금을 완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감사를 표했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모교에서 대동제가 열리는 컴퓨터에서 바자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제안했는데,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공터는 대동제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 대관 담당 부서가 없기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어느 한 곳도 배제됨 없이 어우러지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9월 정기 임원회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0월 5일(토) 열리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에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며, 크라운해태제과 과자 등 협찬 상품 외에 아이코닉스 모자와 저금통 등을 후원받아 선물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화인의 봄' 행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화의 역사와 이화를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공연 주제를 정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연직 선정위원인 고문, 회장, 문화부장, 모교 대외협력처장, 모교 홍보실장 외에 한은주부회장, 최지영(사학 89) 홍보부장, 임복희(행정 93) 사회대 회장, 황미경 약학대 회장, 우미령 생활환경대 회장, 윤금진 사범대 회장이 선정위원으로 추천

되었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동창 8만 명(1982~2002학년도 입학생)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모교에서는 추석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임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알리며, 동창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메일이나 문자 등 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또한 이날 이경숙 고문이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 친반투표를 실시했고, 연임안이 통과되어 총동창회는 이경숙 고문을 다시 추대하기로 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4

동창 8만 명 개인정보 유출돼, 모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1982학년도~2002학년도 입학) 여러분께.

학교는 9월 4일(수) 통합정보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를 인지하여 '졸업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학교는 불법 시도를 인지한 직후부터 면밀한 조사와 보안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졸업생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해 드리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련하여 경과를 설명드립니다. 학교는 9월 3일(화) 실시간 모니터링 중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였습니다. 감지 후 즉각적으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9월 5일(목) 오전 11시 경 1982학년도에서 2002학년도에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소, 학적정보 등과 이를 졸업생 일부의 보호자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적이나 재학생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은 보안시스템이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신속히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주의사항 안내, 관련된 피해 상담 등의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하기'를 이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악용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및 연락 등을 수신하시는 경우 아래 민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염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 시스템 점검 및 강화, 유관기관과

의 협력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스템 점검, 보안 시스템 강화,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졸업생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2024년 9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보침해대응단 위원장

연구·대외부총장 신경식

* 개인정보 유출내역 조회하기 //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2004699>

[민원센터 연락처] 02-3277-5501, privacy@ewha.ac.kr, 정보침해대응팀

— 선교부 소식 —

방학 기간 단기선교 학생들을 후원하며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지난 7월 9일(화)에 여름 방학 중 해외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학부생들을 선교부 기도 모임에 초청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는 작은 단기선교 파송식을 가졌다. 단기선교 가는 학부생 총 10명에게 그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올 때까지 그들이 전해 준 기도 편지의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며 각각 후원금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기도와 물질로 학부생들의 단기 선교를 지원하였다. 이날은 10명 중 대표로 남지영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23학번), 김자야(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23학번) 두 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총동창회 선교부원들과 기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교부에서 후원한 단기선교 학생들은 총 10명이다.

- 중남미 엘살바도르(7월 8일~29일): 권찬영(정치외교학과 22학번)
- C국(7월 8일~20일): 조수현(호크마 22학번), 이서

윤(정치외교학과 23학번), 신은혜(사회과교육과 23학번), 김예찬(정치외교학과 23학번)

- V국(9월 11일~22일): 황은비(사학과 24학번), 남지영(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23학번), 김자야(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23학번), 설하임(정치외교학과 23학번), 김서진(건반악기 23학번)

방학 중 단기선교를 다녀온 학생들은 9월 3일(화) 선교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단기선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간증문의 일부이다.

■ 권찬영(정치외교학과 22학번): 중남미 엘살바도르
‘제자 낳는 제자(순장) 세우기’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가톨릭이 문화로 자리 잡은 중남미 특성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하며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순장의 삶을 도전하며 현지 예비 순장 카밀라에게 자상명령과 영적 승법 번식, 제자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는 “한국팀이 떠난 이후에도 엘살바도르 캠퍼스에 제자 낳는 제자가 세워지길 원한다. 혹시 이러한 순장의 삶을 네가 살아줄 수 있겠니?”라고 묻는 제 질문에 카밀라가 울컥하며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대답한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엘살바도르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조수현(호크마 22학번): C국

저희 램프팀은 동아시아 C국 과기대 캠퍼스에서 사역하며 자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이는 한국에 큰 관심이 있어 우리와 쉽게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이가 공산당원이 되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지영 학생

권찬영 학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자이에게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자이는 우리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이와 워챗으로 연락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이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 김자야(기후시스템에너지공학과 23학번): V국

사역팀별로 지정된 캠퍼스로 이동하여 사역을 진행하였고, 몇몇 대학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주변 카페나 대학가, 혹은 주변 관광지들을 돌며 V국 대학생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였습니다. 3번의 ‘친구 초대 파티’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현지 CCC에 접붙임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선교였던 V국 사역을 통해, 말도 안되는 방식의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은 먼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화 캠퍼스로 보냄 받은 저희의 사명을 더욱더 신뢰와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부에서는 학생들의 간증문을 들으며 여름방학 단기선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

글·이수진(조소 05)

도교소식

— 1 —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분야 최고 등급 획득

모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모교는 2009학년도 스크랜튼대학 자유전공 및 2018학년도 정시모집 계열별 통합선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것과 더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을 100% 보장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시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교는 전공을 자율 선택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도교수-겸임교수-멘토 지원체계 운영 내실화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 밀착지도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 및 공동체 형성 지원 △전공탐색 교과목 운영 △전공 상담 및 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마련 등 학생들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이 우수한 점으로 꼽혔다.

또한 전공 자율선택 제도의 지속가능적 운영을 위해 지난 6년간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전공탐색 경험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맞춤 로드맵을 설계하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점도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다양한 방식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 성과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는 호크마교양대학을 통한 무전공 통합선발을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진행하며 미래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점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미래형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 연구·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2 —

모교 연구진 첨단·원천기술 개발 앞장선다

모교 연구진이 우수한 연구력을 기반으로 첨단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요 사업에 선정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식품생명공학과 이진규 교수는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배양육 생산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2028년까지 85억여 원을 지원받아 수산배양육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진규 교수팀은 능성어, 굴, 키조개, 대하 등의 세포를 배양해 원물형 및 가공형 수산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배양육의 공정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 독성 및 안전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약학과[대학원] 권영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STEAM연구사업’의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전략형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최대 5년간(2+3)간 46억여 원을 지원받아 오가노이드 Phenocopy 시스템–인공지능 활용 약물 반응 예측 모델 구축 및 신규 표적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모교 파이오니어연구센터(Pioneer Research Center)는 전이 비율이 높고 환자 간의 다양성 및 암의 공간적 이질성이 매우 높은 특성으로 난치 암에 속하는 대장암에 집중해 난치성 암 극복을 위한 오가노이드 표현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생명과학전공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센터장 강동민)는 교육부 주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인프라고도화사업’에 선정됐다.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는 향후 5년간 70여억 원의 지원을 받아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고 노화질환 관련 중개연구를 수행한다. 첨단 장비인 7테슬라 자기공명영상분광기(MRI), 마이크로CT(Micro-CT) 영상분석장치 등을 통해 생체내(In Vivo) 소동물 분자영상 기술을 활용, 개체와 조직 또는 세포의 다차원 이미지를 상세하게 획득하고 이미지화된 데이터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화·정량화·분석해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관련된 분자적 기전을 추적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예방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물리학과 최태영 교수 공동연구팀은 ‘2024년도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 사업에 선정되어 차세대 ICT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팅 프로세서 개발에 앞장선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 수백만 배 이상의 계산 성능을 발휘하는 차세대 ICT 원천기술로, 특히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시스템의 제작은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모교팀은 여러 양자컴퓨팅 플랫폼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이온 큐비트’를 기반으로 고신뢰도의 양자

중첩 및 얹힘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4년간 26.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생명과학과[대학원] 노태영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STEAM연구사업’의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전략형 사업에 선정돼 향후 최대 5년(2+3)간 45억 원을 지원받아 후성유전체 분석을 통한 간 줄기세포 허지기 및 활성화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진행한다. 파이오니어연구센터(Pioneer Research Center)에서는 기존 줄기세포 연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 줄기세포 허지기 모델 구축, 줄기세포능(Stemness) 유지 및 암화추적 기술, 허지기 탐지 바이오마커 발굴 및 약물 개발, 허지기·활성기 전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간 질환을 비롯한 다른 암종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약학과[대학원] · 뇌인지과학전공 류인균 교수 연구팀 역시 2024년도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전략형 사업에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류인균 교수팀은 2028년 12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4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위험직업군 마인드 바이탈사인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 구축’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팀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는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수집하고, 이와 함께 고품질 다중 뇌영상 자료를 포함한 의료 정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AI 모델링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휴면에러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예측하고, 실시간 디지털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공학과 박찬혁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선도형 과제에 선정되었다.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신산업 제조공정

으로 발생하는 폐수 내 미규제 유해오염물질 처리 및 자원회수를 위한 환경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모교는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신산업 폐수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미규제 수질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상수원의 공공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국민 체감형 폐수처리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3 —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 사이언스코와 MOU 협약

모교는 6월 27일(수)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사이언스코(Syensco)와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기관의 지속적인 산학협력 의지를 다졌다.

‘사이언스코(Syensco)’는 벨기에 글로벌 소재 기업 ‘솔베이(Solvay)’에서 2023년 분사된 소재 전문 기업이다. 모교와는 2011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2014년 산학협력관 내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구. 이화—솔베이연구혁신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배터리 솔루션, 인공지능 등 13개 분야에서 산·학 협력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MOU 협약식에서 김은미 총장과 관계자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가 현재까지 지원한 연구비는 41억 원이 넘으며 모교 화학나노, 화학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경영 등 다양한 전공 교수 1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사이언스코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리더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현재까지 모교 재학생 63명에게 2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022년부터는 개발도상국 학생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언스코는 지난 10년간의 산학 협력 성과를 이어 나가며 10년에 걸쳐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모교 김은미 총장, 일함 카드리(Ilham Kadri) 사이언스코 회장, 프랑수아 봉팡(Francois Bontemps) 주한 벨기에 대사, 정인교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했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는 8천 354m²(약 2,528평) 규모로 설립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글로벌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산학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사이언스코의 모회사인 솔베이가 여성 노벨상 1호인 퀴리 부인이 참여한 ‘솔베이 회의’를 주최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여성 최초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꿈을 품고 산학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김은미 총장과 일함 카드리 회장이 ‘대학—산업 산학협력의 중요성(Importance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을 주제로 좌담회를 펼쳤다. 이번 좌담회는 모교와 사이언스코가 10년간 함께 진행해 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대학—기업의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

약을 기반으로 모교와 사이언스코는 앞으로도 산학 협력 역량을 키우고 대학과 기업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 튼튼하고 긴밀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4 —

‘이마프×프리즈 필름 2024’ 캠퍼스의 밤을 물들이다

조형예술대학(학장 최경실)은 9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마프(EMAP·Ewha Media Art Presentation)를 개최했다. 2001년 시작해 국내외 선도적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소개하는 글로벌 아트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마프는 올해 세계 2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Frieze) 서울’과 협업을 통해 시각 예술 작품 프로젝트 ‘이마프×프리즈 필름’으로 마련됐다.

‘이마프×프리즈 필름 2024’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모교가 추진 중인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단 프란시스 모리스(Frances Morris CBE) 초빙석좌교수가 행사 총괄을 맡았으며, 박주원(Joowon Park) 국립현대미술관 전 큐레이터와 발렌타인 우만스키(Valentine Umansky) 테이트 모던 큐

페스티벌이 펼쳐진 ECC



레이터가 공동 기획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 37명의 미디어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2일(월) 오후 7시 ECC 밸리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김은미 총장, 프란시스 모리스 초빙석좌교수, 최경실 조형예술대학장, 강애란 이마프 실행위원장을 비롯한 조형예술대학 교수진과 재학생, 프리즈 관계자를 비롯한 문화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은미 총장은 “20여 년 역사의 이마프는 영상 설치, 인터랙티브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국내외 여성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를 집중 조명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화의 학생들이 창의력과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비영리 미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프리즈 필름의 파트너로 세계적인 여성 학술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선택한 프리즈 서울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마프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자연 세계와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가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공간과 경계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주를 엮는 모든 것들, 그 양자적 관계에 대하여’를 주제로 총 8개 챕터 35명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ECC 밸리를 포함한 교정 야외 전시 공간에는 ‘양자 얹힘에 관한 질문’, ‘갈망과 소속감’, ‘시간, 데이터, 속도에 관하여: 포스트 모더니티와 가속주의가 제시하는 비전’, ‘살아 있는 존재들과의 연대 만들기’, ‘흙, 돌, 강철, 그리고 영혼에 관하여’, ‘자신을 만나려는 선’, ‘심층 시간’, ‘디지털 시대 인간 경험 탐구 – 이화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스크린이 설치됐다. ‘이마프×프리즈 필름 2024’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 작품을 상영했다.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회장_최경임(물리 85)

2024년 정기총회 개최

6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4년도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혁 자연대학 학장과 홍영숙(화학 62)·안웅학(물리 70) 동창, 남상택(물리 74) 전 총동창회장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정경육(화학 88) 총무의 사회로 총회가 시작되었고, 첫 순서로 오혜경(수학 87) 선교부장의 개회예배가 있었다. 황복기(화학 83) 회장의 개회사와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배경화(화학 74) 동창의 소감이 있었다. 배경화 동창은 민속주인 안동소주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도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박상희(화학 94, (주)켐토피아 대표이사, 환경부장관상 수상) 동창, 이상희(수학 94, KBS, OBS 아나운서,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 수상) 동창, 박선규(통계 94,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파트너 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역임) 동창에게 황복기 회장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각 분야에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동창들의 모습에서 뿌듯함과 함께 감사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어 2024년도 신입 동창이 된 김혜빈(수학 24) 동창의 당치고 자신감 있는 인사말과 모습에 선배 동창들의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상혁 자연대학 학장은 그간의 학교 소식을 전하였고, 황복기 회장이 자연대학 동창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각 과에서 1명씩 선정하여 총 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과학대학

회장_임복희(행정 93)

사과대 각 과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

8월 13일(화) 정오, 서울 강남구 소재 경복궁 도곡점에서 사회과학대학 각 과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사회과학대학 임복희 회장과 각 과 동창회장인 조희수(커미부 86)·김정진(사복 80)·라현정(심리 91)·최진경(경제 91) 동창 및 각 과 회장 위임에 의한 대리 참석자 김지숙(정외 88)·엄명숙(사회 83) 동창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된 조희수·최진경 동창을 비롯한 참석자들 소개로 시작하여 각 과 동창회 소식 및 2학기 총동창회 사업 관련 의견 등을 나누었다.

사회과학대학 각 과 동창회장단 정기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1부 마지막 순서로 지난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합창제에 참여했던 자연대 합창단의 합창곡이 이어졌다. 26명의 단원이 한정원(종음 87) 동창의 반주, 박찬옥(종음 89) 동창의 지휘에 맞춰 부른 <꽃 파는 아가씨>라는 합창곡은 화사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무대 연출로 합창제 당시에도 많은 박수를 받았던 곡이다. 이날도 역시 동창회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 주었다.

2부에서는 2023년도 회계 및 사업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각 과 회장들의 과 동창회 활동 상황 보고가 있었다. 각 과 동창회에서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 동창 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황복기 21대 회장의 이임사와 임원 소개가 있었다. 이임사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해 온 열정과 성의가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함께 활동해 온 임원들의 유대감,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어 22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최경임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임원 소개도 있었다. 차분하고 겸손하면서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취임사에 모두가 응원의 박수로 화답했다. 최경임 신임 회장은 황복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여 21대 자연대 동창회를 이끌어 온 노고에 모두를 대신해 감사를 표하였다. 최경임 신임 회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계기로 앞으로 자연대학 장학금 기금조성을 계속하자는 황복기 회장의 제안에 뜻을

같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2024년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총회는 황복기 21대 회장의 폐회 선언과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되었다.

의과대학

회장__임선영(의학 82)

2024년 영닥터스 포럼 개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4시 ‘라 룬 비올렛’에서 선후배 의과대학 동창이 함께하는 영닥터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선영 회장, 피상순(의학 84) 수석부회장, 최영주(의학 79) 감사 등 집행부 임원과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팎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 아래에서 선배가 후배를 위로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였다. 임선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로 공감해 주는 친구가 되자”라고 하였고, 최영주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 박영미(의학 96) 영닥터스 포럼 위원장의 경험담 보고가 있었고, 반유화(의학 09) 이사의 ‘나를 돌보는 법’ 강의에서는 “나를 잘 돌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우호적 양육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식사 후 후배 전공의와 학생들은 자기 소개와 일상의 공유 및 격려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피상순 수석부회장은 참석한 후배들에게 「최고가 되는 여성 리더십 5단계」를 선물하였다.

영닥터스 포럼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 및 재학생들



간호대학

회장_정승은(간호 86)

간호과학관 건축 후원 행사

5월 1일(수) 가평 이화 수목원에서 간호대학 교수, 연구원, 동창, 학생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대학과 25) 선생의 70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고 이정애 선생은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1928년 하와이에서 유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최초의 간호사로, 1937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 조선을 대표하는 간호협회 회장으로 참가한 바 있다. 195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초대 학과장으로 간호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자리에서 간호대학 동창들은 추모예배와 함께 양식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귀한 만남을 통해 추억의 시간을 쌓았다.

5월 31일(금) 오후 4시, 헬렌관 116호에서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16회·36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동창회에서 주관한 본 행사는 변은경(간호 83) 회장 및 임원,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장을 포함하여 총 111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4년간 동창회를 이끈 변은경 회장이 임기를 마쳐 이임하고 정승은(간호 86) 동창이 신임 동창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새로운 회장과 함께 간호대학 동창회와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 간호과학관 건축 후원 행사로 '이화간호의 미래를 위한 초대'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변은경 회장 및 임원, 강윤희 간호대학장을 포함하여 총 132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많은 동창들이 건축기금을 약정하였으며, 이후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동창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간호과학관 건축 후원 행사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8월 7일(수), 2025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창회 소개 및 신입 동창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동창회에서 주관한 본 행사는 정승은 회장, 현석경(간호 87)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구종모(간호 91)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 학장, 신수진(간호 96) 간호대학 부학장, 최고은(간호 16) 동창회 서기와 간호대학생 104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동창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신입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2일(목),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이대엄마아기병원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병원 관계자, 외빈들을 포함하여 구종모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이자형 간호대학 명예교수, 신수진 간호대학 부학장이 참석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산모와 태아, 신생아 관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응급 산모를 위해 '산후 출혈 FAST Track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센터가 구축되었는데, 특히 에드먼즈간호교육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원 양성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를 기린 것으로, 문현숙(간호 92) 특수간호팀장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에드먼즈간호교육센터에서는 신생아 심폐소생술, 산후출혈 시뮬레이션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 교육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산사 교육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케어할 엄마야기병원의 탄생은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인 보구녀관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는 이화 간호 역사에서도 뜻깊은 함의를 가진다.

약학대학

회장_황미경(약학 86)

자연과 문화예술을 만끽한 정기 임원회의

약학대학 동창회의 6월 정기 임원회의는 원주에서 진행되어, 뮤지엄 산을 방문하여 자연과 문화와 예술의 울림을 만끽하였다. 이날 회의는 5월 31일(금) 동창회 날에 열린 합창제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리고, 이날 참석해 준 50주년 동창 및 ‘영원한 이화인’ 장우현(제약 74) 동창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안전 처리 등이 있었다. 임원회의 후 진행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박하영(약학 77) 고문의 배려로 (주)다림바이오텍 공장을 방문한 것이었다. 박하영 고문의 부군인 정종섭 회장과 여러 직원들의 상세한 안내로 최신 설비와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KGMP 공장에서 의약품 제조 과정을 직접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쉽게 둘러보기 힘든 첨단 생산시설과 실

험실을 돌아보며 생생한 제약 산업의 수준을 체험하였고, 약에 대한 신뢰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밝은 미래를 느낀 하루였다.

제42호 약대 동창 소식지가 지난 1년간의 학교 소식 및 총동창회 소식, 약대 동창회의 회무보고와 각 기별 소식 및 수상 소식, 동창들의 수필 등 풍성한 내용을 실어 8월 말 동창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란에는 5월 동창의 날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유물 기증식을 가진 김춘자(약학 63) 동창 인터뷰를 실었고, 졸업 30주년·50주년·55주년·6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가진 동창들의 소식도 실었다. 신입 동창들에게 진로 관련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던 ‘Powerful Alumni Index’를 모든 동창을 위해 이번 소식지에 공유하였다. 또한 새로 건립될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의 웅장한 건축 시안 등을 소개하며 후원 약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안내도 실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우미형(의직 77)

가정학과 1965년 졸업 동창 모임

6월 11일(화) 가정학과 1965년 졸업 동창(회장: 최남숙)들이 아령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33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미형 회장과 박민정(가관 99)

아령당에서 가정학과 1965년 졸업 동창들과 함께한 생활환경대학 동창회



대외협력처장, 이혜민(가관 07) 대외협력처 부처장이 아령회 활동과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조성 관련 설명이 있었다.

동창들은 이향진(가관 87) 언론홍보부장이 제작한 '2024년 아령회 활동보고'와 '2024 아령회 홈커밍데이행사', '아령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생활환경관(옛 가정대건물)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으며, 최근 아령회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해 주었다.

오랜만에 모인 여든이 넘은 가정학과 1965년 졸업 동창들은 함께 식사와 환담을 하고, 아령회와 모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우미형 회장과 박민정 대외협력처장이 함께 자리해서 더욱 뜻깊은 선후배들의 시간이 되었다.



신학대학원 합창단 이화아이음콰이어

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소통하며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했다.

이 행보는 올해 5월 동창의 날 기념행사 중 하나인 합창제에 특별 출연하며 시작되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만큼 긴 세월 동안 성가대에서 갈고 닦은 기본기를 발판 삼아 몇 번의 집중 연습 끝에 첫선을 보였던 무대. 우리의 합창 동영상을 돌려보던 내내 이 아름다운 모임의 일원이 된 기쁨이 충만하게 차올랐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창단된 본 합창단을 향한 신학대학원장 및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지, 단장의 열정, 지휘자의 지도력, 반주 실력 못지 않은 좋은 성품으로 합창단에 온기를 더하는 두 반주자, 합창단의 살림을 체계 있게 운영해주는 임원진, 무명의 후원자들, 연습 때마다 자원해 김밥, 빵, 떡, 커피 등으로 서로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합창단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이처럼 이화아이음콰이어는 서로를 향한 고운 마음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 결과로, 신학대학원 동창회의 귀한 모임으로 뿌리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 신대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현재의 20명을 넘어 40~50명의 단원으로 사역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이화아이음콰이어에서의 동창들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찬란한 화양연화로 꽂 피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신학대학원

회장__최영신(신대원 12)

'하모니로 잇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벗꽃이 막 꽃망울을 터우기 시작하던 그즈음,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층 아담한 예배실 안에 선 여인들의 맑고 깊은 하모니가 피아노 선율에 실려 출렁이기 시작했다. 평균 나이 이순을 넘어선 십여 명 남짓한 이화 신학대학원 동창생들이 강영구 지휘자의 섬세한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을 모아 부르는 찬양 소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잇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신학대학원 이화아이음콰이어가 2024년 4월 2일(화) 창단 예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행보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최영신 회장의 신대원 합창단 조직을 위한 열망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초석이 되어준 십여 명의 단원들. 시작은 소박하지만 하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회장__ 정경숙(79)

다양한 분야 간담회 잇달아

이번에 출범한 33대 영학회에서는 내년 '영문과 100주년 기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학회 동창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건강한 줄기세포 하나가 여러 기능을 하는 우수한 장기로 문화 발전되듯 이화 영문이라는 줄기세포는 우리나라의 중요 혈액으로 곳곳에 뻗어 나아왔다. 식민지와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통을 겪어내며 오늘날 K-한류를 만들어 내는 이화 영문의 역사가 동창 간담회에서 다시 보기로 재생되는 감동이 무더위를 제압하며 올라왔다.

다음은 성사된 간담회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한다.

[전임회장단 간담회]

1. 일시 : 7월 23일(화) 14:00
2. 장소 : 모교 인문관 201호
3. 참석 : 고영자(63), 최정규(65), 유중근(67), 박은경

(68), 안미순(71), 김혜정(72), 이정숙(77), 홍성미(78)

4. 사회: 강명옥(82), 기록: 홍의경(85), 진행: 신정선(84)

[방송인 간담회]

1. 일시 : 7월 25일(목) 11:00
2. 장소 : 모교 인문관 201호
3. 참석 : 이숙영(80, 아나운서), 김혜란(82, 전 KBS 국제협력실 PD), 고희경(92, SBS 아나운서), 권수현(03, 연합뉴스 기자), 김효정(08, BBC 기자), 현솔잎(09, MBC 기자)
4. 사회: 이무경(89), 기록: 박미정(88), 진행: 이유미(83)

[언론인 간담회]

1. 일시 : 7월 26일(금) 11:00
2. 장소 : 모교 인문관 201호
3. 참석 : 이덕규(79, 전 중앙일보 기자), 김순덕(84, 동아일보 고문), 허란(05, 한국경제신문 기자) 구유나(16, BBC 기자), 김연주(16, 중앙일보 기자), 윤솔(22, 세계일보 기자)
4. 사회: 서연희(94), 기록: 김지은(81), 진행: 김경숙(84)

[문화 간담회]

1. 일시 : 7월 29일(월) 14:00
2. 장소 : 모교 인문관 201호
3. 참석 : (외부전문가) 신선희(68, 전 국립극장장), 배혜경(79, 전 크리스티즈 한국지사장), 이화익(80, 갤러리대표, 전 화랑협회 회장), 전혜숙(83, 미술사

사법행정 간담회



교수), 박윤정(88, 전 소마큐레이터 전시기획자), 김은령(94, 전 디자인하우스 부사장), 황 윤(95, 영화감독) / (영학회 내 전문가) 정경숙(79, 갤러리정 대표), 노정하(88, 집아트 대표), 우혜수(90, 전 아모레 미술관장)

4. 사회 : 우혜수, 기록 : 곽상희(92), 진행 : 노정하
[금융기업 간담회]

1. 일시 : 8월 2일(금) 18:30

2. 장소 : 한일관 압구정점

3. 참석 : 이성남(70,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융 감독원 부원장보), 손병옥(74, SC제일은행 사외 이사, 전 푸르덴셜생명 회장), 혀금주(87, G20 Empower Alliance 한국 대표, 전 교보생명 전무), 박경희(90, 삼성증권 WM사업부문장, 부사장), 김정원(91, 김&장 고문, 전 씨티은행 재무부행장), 최승은(91, 삼성전자 MX사업본부 부사장, 전 존슨앤존슨 글로벌케어본사 사장)

4. 사회 : 한유경(91), 기록 : 김희진(94), 사진 및 영상 촬영 : 노정하(88)

[선교 간담회]

1. 일시 : 8월 9일(금) 11:30~14:00

2. 장소 : 한일관 압구정점

3. 참석 : (간담회 참석) 성혜우(70,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 이명실(78, 전 총동창회 총무), 이재진(78, 성경번역선교사), 이은혜(83, 영남 신학대 조교수), 최문영(83, 이화의료원 초대 원목), 박경난(89, 이대 국제처 특임교수), 이은혜(05, 호주 YMAM) / (서면 답변) 김영자(66, 우간다 선교사), 송현복(69, 한국선교훈련원 명예교수), 박혜원(79, 인도네시아 선교사), 오은주(74, 필리핀 선교사), 양은숙(80, 알바니아 선교사), 엄옥희(86, 우간다 선교사), 김선정(88, 캐나다 선교사)

4. 사회 : 이유미(83, 총무), 기록 : 이연선(01, 전 서울

경제부장), 사진 및 영상 촬영 : 김경은(79)

[사법행정 간담회]

1. 일시 : 8월 12일(월) 18:30~21:00

2. 장소 : 친니 광화문점

3. 참석 : 김정순(83, 김앤장 고문), 윤혜미(81, 전 아동 권리보장원 원장), 강민아(88, 전 감사원장 대행), 곽진영(88,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폐방지 부위원장), 김선화(92,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서연희(94,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4. 사회 : 조영미(82), 기록 : 윤수현(95), 사진 및 영상 촬영 : 양옥경(82)

개척해 온 100년 이화 영문이 개척해 갈 100년 이화 영문을 맞아 악수하고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

기독교학과

회장 __ 한은주(87)

재학생에게 ‘선배가 쓴다’ 간식 나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인 5월 31일(금) 기독교학과 동창들과 재학생 대표 2명, 학과장인 이윤경

재학생과 동창들이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눈 기독교학과 동창회



(91) 교수와 교목실장인 김혜령(99) 교수가 한 자리에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래 전 이화·동산에서 보낸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되었고, 선배 동창들이 재학생을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과 덕담이 오가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창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금일봉을 재학생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이 격려금은 6월,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선배가 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불고기 버거를 전달하였다는 따뜻한 소식이 동창회로 전달되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선배들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 재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

이어지는 동창회 활동을 통해 동창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동창과 재학생들 사이에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이어져 동창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소망해 본다.

정치외교학과

회장__김희정(88)

영화 관람 문화행사 기획

5월 23일(목) 여의도 공원에서 ‘2024 걷기 뛰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간의 교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정치외교학과 동창 53명이 참가해 여의도 공원을 돌며 화합을 다졌다. 김희정 회장은 “선후배 간의 스キン십 강화와 건강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6월 21일(금) 오전 11시 모교 ECC 지하 4층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 <프렌치 수프>를 21명



걷기 뛰기 대회에 참석한 정치외교학과 동창들

의 동창 선후배가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정희 회원님! 우리 함께 영화볼까요?’라는 주제로 처음 기획된 문화행사였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_조희수(86)

정기총회에서 26대 신임회장 추대

5월 13일(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4년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정기총회가 열렸다. 최선열(영문 70) 명예교수 및 유승철 학부장을 비롯한 현직 교수들도 참석하였고, 특별히 올해 첫 부임한 육성빈 교수도 함께했다.

이날 총회는 조희수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탁미경(82) 24대 전임 회장의 회계 감사와 장양순(85) 부회장의 회계 및 사업 보고가 있었다. 다음해를 이끌어갈 26대 신임 회장에는 조희수 동창이 선출되었다. 한편 유승철 학부장에게 나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모교 소식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홍보팀장으로 훌륭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정아(95) 동창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실감 나는 사례를 들어 특강을 진행



정기총회에 참석한 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들



김판숙 동창의 구순 잔치를 마련한 사회복지학과 동창회

하였다.

2부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11회 동창들이 학창 시절의 사진들을 감상하면서 회상에 젖기도 했다. 또한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이화인’을 추대한 31회 동창들도 사회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3명의 신입동창(61회)이 참석하여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동창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화 커미부’가 새겨진 아담한 파우치 기념품을 나눠 가지면서 동창들은 반가움과 아쉬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그간 수고한 25대 오기애(85) 회장과 임원진에 감사드린다. 무한 서비스 정신으로 동창회에 봉사하겠다는 신임 26대 조희수 회장단의 열정에 많은 기대와 힘찬 응원을 보낸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 김정진(80)

구순 잔치 마련하고 축하 모임

사회복지학과 동창회는 6월 26일(수) 동창회를 창립하고 헌신해 온 김판숙(58) 동창의 구순 잔치를 마련하였다. 김판숙 동창과 가족, 동창, 학과 교수들이

함께 마음 깊이 감사와 축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물리학과

회장__ 김수미(90)

임원 회의 갖고 동창회 일정 공유

6월 18일(화) 자연과학대학 총회 후 모교 진선미관 자연솜씨에서 물리학과 신임 임원진들의 첫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5월 30일(목) 물리학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수미 회장이 주도하였다. 2024년과 2025년 물리학과 동창회를 운영할 신임 임원진들은 물리학과 동창회 기금 현황과 운영비 목록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

신임 임원진들과 첫 회의를 가진 물리학과 동창회



고 친목을 다지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년 5월 16일(금)에 예정된 학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물리학과 70주년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김선경(97)·차지연(98) 동창이 선출되었다. 학과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은 동창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고, 더불어 물리학과 졸업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생명과학과

회장__ 박미향(89)

이화 바이오 브리지 기관 탐방 행사

생명과학과 멘토와 멘티로 이루어진 멘토링 프로그램인 이화 바이오 브리지(Ewha Bio Bridge, 이하 EBB)는 지난 7월 15일(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바이오 기관을 탐방하는 기관 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과학과 동창 선배로 구성된 EBB의 멘토 7명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멘티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이하 싸토리우스), ABL Bio, 그리고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등 총 3곳의 국내 유망 제약 바이오 기관을 탐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싸토리우스는 바이오 연구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바이오 공정 전문 기업이다. 이화여대 약학과 겸임교수 김덕상 대표의 바이오 산업과 기술 경영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싸토리우스 본사 및 연구소 시설 견학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신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ABL Bio의 가파른 성장과 현재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현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를 견학 중인 생명과학과 동창들과 재학생들

직자 이화 선배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는 국제적인 파스퇴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감염병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BLA 등급의 감염병 연구 시설 견학 및 기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멘티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각 기관 임직원 분들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멘티들 역시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는 등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멘티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산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운 소중한 기회였다.

흔쾌히 기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영해 준 각 기관 임직원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한 멘토진들 및 재학생 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양화과

회장__ 김지연(93)

41회 채연전 개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6월 19일(수)부터 일주일간 인사동 소재 인시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41회째를 맞는 채연전은 80여 명의 동창들이 참여하



체연전에 참여한 동양화과 동창들

여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 전시는 많은 관람객의 방문과 더불어 두 점의 작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체연상은 변기숙(84·정유미)(05) 동창이 공동 수상했다.

서양화과

회장__송은주(86)

'아트리에 하원 석정'으로 야유회

6월 13일(목) 서양화과 동창들은 1회 졸업생인 한진수(49) 교수의 미술관을 방문하였다. 압구정역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이 모여서 전세버스를 타고, 강화로 출발하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강화에 도

착하였다. 미술관 가는 길에 강화에서 유명한 갑곶성지와 한옥 성당을 탐방하며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공회 성당은 목조건물로 1900년대 당시 사진들과 사용한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

식사 후 한진수 교수의 미술관으로 이동했는데, 전세버스 진입이 어려워 근처에 내려서 걸어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푸른 녹밭을 지나 멀리 보이는 미술관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강화의 넓은 녹밭들이 있는 평지에 우뚝 선 미술관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며 걸어갔다. 작열하는 태양을 등지고, 얼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미술관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초기 작품들이 가득한 이 미술관은 '아트리에 하원 석정' 천병근·한진수 미술관으로 부부인 두 작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전시회 감상 후 우리 모교 역사에 대한 퀴즈들을 맞추고 상품도 받으며, 서로 마주 보고 웃고 정겨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소과

회장__오주연(90)

제40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6월 4일(화)부터 15일(토)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제40회 이화조각회 정기전이 '불멸(不滅); 직업으로서의 조각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978년 예림조각회와 1979년 이상조각회의 모계보를 가지고 1980년 출범한 이화조각회는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서 열정적인 창작활동 및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회원들





이화조각회 정기전을 개최한 조소과 동창회

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각자의 역할에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조각가로서 예술작업에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직업으로서의 조각가’라는 모습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참여 작가는 강서우(대학원 재학)·강선구(99)·강선희(87)·강승주(87)·고혜숙(77)·김다슬(15)·김보경(19)·김순임(02)·김양선(94)·김연(91)·김영란(79)·김은영(24)·김종희(79)·김진선(19)·김형주(84)·김희경(79)·나진숙(84)·노은경(93)·도정윤(24)·박은선(98)·박주미(22)·박효정(90)·박희민(23)·방지희(87)·백인정(96)·손정은(92)·신민주(23)·신은숙(79)·신은주(79)·심부섭(76)·안경하(99)·안세진(24)·오수연(98)·오주연(90)·옥정빈(22)·우유리(13)·윤수진(01)·이경희(86)·이고은(06)·이말옹(98)·이서원(24)·이선희(81)·이수민(21)·이수원(12)·이영송(90)·이용현(대학원 22)·이윤정(91)·이은아(92)·이정자(66)·이종희(71)·이주혜(23)·이지은(97)·이지향(98)·이채현(88)·이현숙(85)·장서영(07)·장선아(90)·장유정(02)·정미숙(87)·정희윤(21)·조우빈(서양 17)·지연신(89)·차경화(00)·최승애(85)·최승연(24)·최은경(88)·호해란(88)·홍유영(98)·황은주(22)·황지선(74) 동창 등 총 70명이었다 (가나다순). 1966년 졸업생부터 2024년 졸업생까지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40회 정기

전을 기념한 뜻깊은 전시였다.

섬유예술과

회장__ 이상영(94)

바자회 및 예미전 준비 회의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보메청담에서 총동창회 바자회 및 동문전인 예미전 준비를 위해 섬유예술과 임원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상반기 각부 활동 보고 및 총평하고, 중간 회계 보고가 있었다. 후반기 운영 계획 중 9월 바자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토의가 있었다. 각자 바자회에 필요한 상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에 전시 예정인 예미전은 예미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9회 이화섬유예술전–Joyful Harmony’라는 주제를 정하였고, 7월부터 전시 홍보 및 전시 인원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예미 임원진은 보다 많은 섬유예술과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석자는 이상영(94)·이혜원(96)·최유리(96)·안은선(07)·정현정(07) 동창이다.

8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한우리 본점에서 제3차 예미회장단 회의가 있었다. 예미회 상반기 활동

바자회 및 예미전 준비 회의를 가진 예미 회장단



결과 보고와 하반기 활동 계획과 바자회 및 예미전 준비에 대한 진행을 보고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들이 많이 참석하여 섬유예술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였다. 참석자는 이효범(61)·김혜순(66)·오복환(66)·윤귀영(71)·박정례(79)·이상미(88)·전영선(88)·박희진(90)·이상영(94) 등이다.

생활미술과

회장__ 김수진(94)

임원회의 갖고 바자회 논의

7월 20일(토) 생활미술과 동창회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꼬또'에서 하반기 임원회의를 가졌다. 김수진 회장 이하 임원진 김도희(97)·박지혜(08)·양정은(08)·김민송(17) 등이 참석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회계정리 및 하반기 있을 바자회와 동창회 모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청년부 동창회 모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젊은 동창들의 참여와 교류로 동창회 모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생활미술과 동창회 임원진들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회장__ 이승언(장미 91)

'동문의 밤' 개최

6월 14일(금)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공간디자인전공(전 장식미술과) 51주년을 기념하는 '동문의 밤'이 개최되었다. 2024년 '동문의 밤' 행사 드레스 코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Yellow' 였으며, 총 80명이 넘는 동창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즐기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동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동창들

무용과

회장__ 한명옥(79)

동창들을 위한 라인댄스 강의

무용과 동창회에서는 '무용과 동문을 위한 라인댄스 강의'를 지난 7월 한 달간(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딜라이프 댄스스포츠학원에서 개최했다. 무용과 26기 윤종옥(92, 딜라이프 댄스스포츠 대표) 동창의 강의로 4회에 걸쳐 진행된 수업은 무용과 동창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는 물론이고 세대를 넘어 동창 간의 화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호응에 힘입어 9월에 2차 강의를 진행하였다.



라인댄스 강의를 듣고 있는 무용과 동창들

올해 처음 시작된 라인댄스 수업은 격년으로 열리는 ‘무용과 동창회 친선골프대회’와 함께 무용과 동창을 위한 취미 활동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아교육과

회장__황혜현(90)

스승의 날 행사 개최

5월 12일(토) 서울 한정식집 달개비에서 퇴직 은사님과 현직 교수님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전·현직 동창회 임원들과 졸업 50주년을 맞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신화식(74) 동창이 참석하였고, 은사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전했다.

1부는 방은정(91) 부회장의 사회와 최혜영(89) 선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사제 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낸 유아교육과 동창회



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황혜현 회장의 감사 인사, 선물 증정으로 진행되었다. 2부 식사 이후에는 이은화(59) 은사님의 육성 녹음 덕담과 사제 간에 화기애애한 담소와 추억을 나누었다. 또한 이기숙(72) 은사님이 준비해온 캘린더 선물게임으로 더욱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31일(금) 이화 창립 138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 50주년 동창 중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신화식 동창이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를 받았다. 또한, 졸업 30주년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90학번 동창들은 ‘올해의 이화인’에 동참하고자 12명의 동창이 참여해 후원금 350만 원을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다.

특수교육과

회장__김은경(87)

모교 방문의 날 행사

6월 28일(금) 오후 6시 모교 진선미관에서 2024 특수교육과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학과의 전·현직 교수들과 동창 대표들이 모여 스승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조혜진(장미 89)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2일(일) 남가주동문합창단이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정기연주회를 하였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노래 실력을 뽐냈고,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 연주도 겸한 아름다운 콘서트였다. 끝나고 동창회에서 마련한 리셉션으로 연주자, 청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도 가졌다.

6월 24일(월) 연례 행사인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Buena Park에 있는 Private Club인 Los Coyotes에서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동창 및 동창들의 지인이 함께하였다. 낮에는 골프를, 저

정기연주회를 가진 남가주동문합창단



녁에는 여러 가지 게임 및 식사 그리고 푸짐한 선물로 함께하여 참석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8월 25일(일)에는 모교에서 한국음악과 50주년 행사를 위해 방문한 학생 및 교수로 구성된 국악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있었고, 이 자리에 남가주동문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하였다.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지원하고 남가주 동창회에서 음악회 후의 리셉션을 준비하여 방문한 동창, 손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국악 오케스트라는 이곳 교민 및 현지인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겨 주었고 이화인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시간이었다.

8월 29일(목)은 할리우드볼에서 음악회 관람이 있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LA 필오케스트라의 협연이었는데 동창과 그 손님들 220여 명이 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함께 여름밤의 음악회를 즐겼다.

뉴욕 지회

회장 __ 김영신(독문 88)

'봄보신 Day' 행사로 초복 다스려

7월 15일(월) 뉴욕 지회의 동창회 6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획한 '봄보신 Day' 행사를 뉴저지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치렀다. 초복다운 무더운 날씨 속에 뉴욕과 뉴저지 각 지역에서 온 동창들에게 뜨거운 백숙과 누룽지탕 그리고 후식으로 팥빙수와 음료를 대접하였다. 각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기수의 동창들이 어울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담소를 나누며 이화의 끈끈함을 다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다.

7월 30일(화) 2024년도 뉴욕 지회 장학금 수혜자가 선정되었다. 장학생은 지적 역량, 경제 사정, 성실성, 도전정신, 적응력 등 미래인재감을 보아 선정하였다.

Yoona Kim(Columbia, Teachers College)에게 4,000 달러, Ga Lee(Stony Brook University)와 Grace Park(Parsons School of Design)에게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그 밖에 2030세대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모임이 있었다. 8월 18일(일)에는 선배인 이문향(의학 79) 동창의 초대로 집밥을 함께하며 20대 30대 동창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고, 8월 24일(토)에는 뉴욕 반주 레스토랑에서 20여 명이 모여서 브런치를 하며 네트워킹 모임을 가졌다.



'몸보신 Day' 행사를 개최한 뉴욕 지회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 (수학 92)

동창들과 안부 및 근황 나누어

5월 30일(목) 화창한 여름의 문턱에 Point Claire에 위치한 Imperial 식당에서 동창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를 가졌다. 작년 연말 송년모임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누었다. 오랫동안 함께한 김광주(교육 67) 동창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는 소식에 새로운 한국 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몬트리올 동창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그동안 동창들이 만들었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추억하였다. 바비큐 파티도 하고, 댄스파티에서 배우자들이 장미를 입에 물고 춤을 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몬트리올 지회 동창들

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또한,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6월에는 깻잎 모종을 동창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벤트를 가졌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 __ 김정은(체육 90)

정기총회 및 '이화 봉사단'과의 만남

6월 29일(토) 김정은 회장 자택에서 12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모임을 가졌다. 앞으로 2년 간 미네소타 동창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및 새 임원단을 선출하였으며, 김정은 동창이 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다. 지난 모임에서 결정된 Jangmi Arts와 미네소타 한인회에 대한 후원금 전달이 보고되었고, 9월 21일(토) Mall of America에서 열리는 한국문화 페스티벌에 작년에 이어 동창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황성숙(국문 68) 동창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



한국에서 온 '이화 봉사단'과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Ewha Donor's Wall) 등록 소식을 공유하며 감사와 축 하의 마음을 나누었다.

7월 5일(금)에는 한국에서 온 '이화 봉사단'과 만남을 갖고 저녁식사를 함께하였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한인 입양아와 한국계 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캠프 조선'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비전을 가진 멋진 젊은 이화인들과 미네소타 동창들이 함께한 뜻깊은 교류의 시간이었다.

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8월 초에는 와이너리 와인테이스팅 투어를 점검하기 위해 준비팀이 Beringer Winery를 방문하여 테이스팅을 하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고, 이화 학창 공연을 위해 학창단원과 그 지원 팀원들은 대면연습과 줌을 통한 연습에 한창이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참석하는 동창들, 모교에서 방문하는 총장님과 총동창회장, 각 기관 담당자들, 이화국제재단 이사들을 정성껏 접대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준비 막바지

북가주 지회는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 벌링게임시에 위치한 SFO Marriott Waterfront Hotel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0월 25일(금) '총장님과의 만찬', 10월 26일(토)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을 하이라이트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와이너리 와인테이스팅 투어, 애프터눈 티파티, 샌프란시스코 일일관광, 의료원과 역사관 특별세미나, 주일예배, 총장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정기적으로 준비팀이 모여 스케줄과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회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막바지 준비에 들입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시드니 지회

회장 __ 강혜옥(영교 83)

동창회 통해 유익한 정보 나누어

시드니 지회는 1년에 세 번 모이는데 2024년 첫 번째 모임은 2월 16일(금) 강혜옥 회장의 집에서 열렸고 26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7월 18일(목) 시드니 채스우드에 있는 중식당 '마마물란'에서 2024년 두 번째 시드니 동창회가 열렸다. 23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 대화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다.

모임 이벤트로 'Beyond Dental Clinic'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3명을 모시고 '치아 건강관리와 임플란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치아 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시드니 지회 동창들



리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칫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임플란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만남은 드레스 코드를 블루로 정하여 베스트 드레서도 뽑는 등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다음 모임은 11월에 시드니 Crown Hotel에서 가질 예정이다.



야우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시애틀 지회

회장 __ 이재경(수교 80)

가족과 함께한 여름 야유회

8월 10일(토) O Denny Park에서 약 70명의 이화 가족이 모여 즐거운 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아외 바비큐를 비롯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오랫만에 나들이 이한(1960년대 졸업) 대선배부터 2010년대 졸업한 동창까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며 즐거운 한나절을 지냈다. 특히 2부에서는 한의사로 활동하는 신경림(장미 80) 동창에게 빼를 튼튼하게 하는 뺏골 때리는 운동을 배우며 하하호호 시간을 가졌다.

작품 활동을 하는 동창들의 전시회도 활발하게 열려서 6월에는 강성아(무아, 동양 16) 동창, 7월에는 윤향구(Yuni Wong, 동양 67) 동창 개인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8월, 9월에는 KAAW(Korean American Artists Association) 회원들의 전시회가 린우드와 벨뷰 아트센터에서 동시에 열려 박정혜(체육 71)·오명애(생미 83)·김미호(섬예 84)·윤은정(사회 85)·심온식(동양 85)·벨라옹옥 김(생미 86)·이찬주(동양 00) 동창의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시애틀 이화 동창들의 배움과 활동의 영역은 끝이 없어서 미대를 졸업한 동창이 한의학 박사로, 영문학 등을 전공하고 서양화, 조각, 섬유예술까지 폭넓게 활동하는 동창들이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한다.

한편 시애틀 인근 지역 훼더럴 웨이에 한국 정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김희정(영문 83) 동창이 '한우리 정원' 후원의 밤 준비위원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시애틀 지회는 소그룹 활동으로 골프부, ART반, 차선방(차와 선율이 흐르는 방), 하모니합창반, 등산사진반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8월 27일(화)에 골프부의 토너먼트 대회가 열렸다. 하모니합창반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도서관에서 모여 새로운 곡을 배우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차희숙(체육 77)

97세 동창의 생신 축하 파티

8월 11일(일) 오후 1시 서라벌 식당에서 32명 선후배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 모임을 가졌다. 차희숙 회장의 개회 인사와 김순희(법학 66) 동창의 개회기도로 시작하고, 이화 소식과 광고를 전달하였다.

8월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생일 축하 파티였다. 임원들은 동창들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8월에 생일을 맞은 최고령 동창인 97세의 성정순(체육 49) 동창과 94세의 오은경(교육 54) 동창, 그 외 김난경(국문 59)·계원옥(수학 69)·이복희(섬예 75) 동창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성정순·오은경 동창의 따님들이 손수 준비해 온 생일



생일을 맞은 동창을 위해 파티를 준비한 애틀랜타 지회

케이크, 이화마크 상자 속 선물들과 동창회에서 마련한 떡과 구디백을 참석한 모든 동창에게 전달하고 푸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틀랜타 지회는 매달 떡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서 동창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고, 동창회 모임을 더 돋독하고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또한 모교 기업가센터에서 선발된 창업팀 학생들이 담당 교수, 단장과 함께 워싱턴DC를 방문하였고, 워싱턴DC 지회는 여러 동창과 함께 7월 24일(수) 워싱턴DC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재학생들과 지역 동창들이 만나 이화라는 이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워싱턴DC 지회에서는 다가오는 10월, 이화 Fundraising 친선 골프 아우팅을 계획하는 등 이번 가을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준비 중이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자녀와 함께한 봉사 활동

워싱턴DC 지회는 지난 7월 21일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Backpack Drive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Little Lights'라는 재미 한인 Steve Park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음 학기 학용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소외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가득 채운 백팩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인데 워싱턴DC 지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참석해 왔다. 사회봉사부장 이윤진(불문 94) 동창의 자택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 활동에는 동창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여 전달될 백팩을 함께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많은 이화 동창들의 후원과 기부 덕분에 40명의 학생을 위한 품질 좋은 학용품과 백팩을 마련하여 전달할 수 있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조혜라(영문 96)

즐거움과 하모니가 가득했던 토론토의 여름

2024년은 연간 행사와 전시회, 학창 연습 등 선후배 동창들 간에 교제가 풍성한 계절이었다.

4월 햅뷸러 예배에서는 '하얀 배꽃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화여대의 정신인 진·선·미가 드러난 배꽃의 영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짧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지혜를 구하는 참되고 바른 영성, 죄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며 본인의 선함을 지키려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성, 외면 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갖추며 열매를 맺기 위해 사그라지는 배꽃의 영성을 생각하며, 이화 동창들의 삶에 이러한 영성을 꽂고 피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고, 즐거운

이화 비빔밥의 교제로 이어졌다.

5월 첫 주간, 미술대학 녹미회의 전시회 역시 동창들의 방문과 축하 가운데 이루어졌다. 'Mother'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와 감성의 예술 작품들이 한데 모여. 감상하는 이들에게 많은 생각과 풍부한 감성을 선사해 주었다.

6월 22일(토) 야유회를 계획했던 여름 모임이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녹음이 짙은 야외가 아니라 아쉬울 법했으나. 오히려 실내에서 더욱더 많은 웃음과 풍성한 게임으로 선후배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토론토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해 온 지 반 세기가 된 것을 기념하고 자 음악회를 준비하며. 여름 방학도 없이 모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다듬고 연습에 매진했다. 이화 동창, 사위, 자녀 음악인들의 프로페셔널 무대와 함께 동창들의 합창, 그리고 사위 중창까지 풍성한 무대를 준비해서. 토론토의 한인사회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가족과 함께 동창회에 참석한 프랑스 지회 동창들

합교회 교육관에서 재불 이화 동문 야유회가 열렸다. 전통적으로 6월 첫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화 가족 야유회는 매년 야외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행사 전날까지도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긴급히 실내 장소를 섭외하여 극적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행사가 열린 파리연합교회는 1972년 창립된 파리 최초의 한인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비교적 쌀쌀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선배인 이충석(심리 56) 동창부터 파리에 교환학생으로 머물고 있는 이현진·김세현(불문학과 2025년 졸업 예정) 재학생까지 50여 명의 동창과 동창 가족들이 참석하여 함께 파리의 봄을 즐겼다.

프랑스 지회 야유회는 동창 및 가족, 지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연중행사로 다양한 세대를 어우르는 가족 피크닉이다. 임원진이 준비한 음식과 동창들이 직접 챙겨온 음식들을 나누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각종 경품 행사와 게임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행사들로 동창과 함께하는 토론토 지회

프랑스 지회

회장 __ 한연미(정외 90)

2024년 재불 이화 동문 야유회

6월 1일(토) 파리 근교 라플라스에 위치한 파리연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조경숙(의학 81)

공원에서 불고기 바비큐 피크닉 즐겨

6월 1일(토) Ridley Creek State Park에서 정기모임 및 불고기 바비큐 피크닉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아유회를 통해 초여름의 신록을 즐긴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에는 동창과 가족들 28명이 모여 즐거운 하루를 가졌다. 유옥자(약학 62) 동창이 손수 양념한 불고기 상추쌈으로 점심을 한 후 초여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여러 가지 게임과 이야기들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진 모임이었다.

7월 13일(토) 강혜란(화학 72) 동창의 집에서 필라델피아 지회의 주관으로 개최한 Benefit Concert(필라델피아 지역 청소년 마약퇴치사역 후원)가 동창 및 지역 한인들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테너 김영석(Mansfield 대학 명예교수, 조경숙 동창 부군), 피아노 박진현(Faculty, Curtis Institute of Music), 스토리텔링 오성실(영문 68) 동창이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연주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모았다. 동창회는 이날 모금된 후원금 4,200달러를 미국의 마약 소굴로 이름난 필라델피아의 켄싱頓 거리에서 청소년 마약퇴치사역을 25년 넘게 하고 있는 채왕규 목사에게 전달했다.

8월 3일(토), 뉴저지 체리힐 제일교회에서 동창 14명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특별 순서로서 재필 노인센터에서 강사로 있는 Kimberly Hong을 초청해 라인댄스를 배웠다. 이교연(영교 70) 동창의 모임 후기 일부를 인용한다. “라인댄스로 몸 풀고 맛있는 점심 먹으니 한 주일의 마감이 알차네요. 그 가운데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씩씩한 새 날 맞으려고요.”

휴스턴 지회

회장__ 양명희(조소 93)

2024년 장학금 수여식 거행

휴스턴 지회는 매년 두 가지의 큰 행사를 하고 있다. 하나는 2월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 등 설 음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구정대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 우수한 기독교인 여학생 두 명에게 각 1,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금 수여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그 중 두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여기 휴스턴에서도 널리 알리며, 여성 인재 발굴과 양성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휴스턴 지회의 장학기금 모금은 모든 이화 동창들의 자발적인 혌신으로 이뤄지는 아름다운 선행이다.

5월 13일(토) 휴스턴 구세군 다민족교회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장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동창들이 함께 식사하며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년 휴스턴 지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Life Tree Ministries에 후원금 1,200달러를 전달하였다.

한편 여름 방학으로 쉬었던 북클럽과 미술산책(Promenade Artistique)의 모임이 문희채(영문 72) 동창의 집에서 있었다.

북클럽과 미술산책 모임을 가진 휴스턴 지회 동창들



이해경(음악 50) 동창

8월 15일(목)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의친왕의 딸 이해경 동창이 뉴욕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해경 동창은 의친왕이 미국 버지니아주(州) 로어노크대에서 유학하던 시절 한인 청년들과 독립운동을 한 기록을 찾아내 공개하는 등 미국에 있는 조선 관련 자료를 찾고, 미 현지에서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환수 운동을 펼치는 등 재외 한국 유물 반환에 노력 한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이해경 동창

기념관 3층 워리어 라운지에서 있었다.

송창주(가정 62) 동창

7월 6일(토) 헤이그 소재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이준열사 순국 117년 추모식을 개최하였다. 추모식에는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과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이기항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원장과 현지 교민 등이 참석하였다.



송창주 동창

김양식(영문 54) 동창

불자 시인인 초이 김양식 동창의 시 세계를 알리는 문학관인 '초이 문학관'이 경북 경산 삼화사에 조성되어 6월 15일(토) 개관식을 가졌다. 김양식 동창은 1968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뒤 다수의 시집과 수필집, 인도 관련 번역서를 출간하였으며, 한국타고르협회를 설립하고 한국인도문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인도간 문화교류에 기여하였다.



김양식 동창

민문자(체육 63) 동창

미국에 거주 중인 민문자 동창이 제주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5,000달러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민문자 동창은 한국전쟁 때인 1950년 제주로 피난 와 동초등학교 5~6학년 피난민 반에서 공부하고 1952년 졸업하였는데, 당시 담임이었던 하순도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생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탁하였다고 한다.

홍기옥(영문 57) 동창

올해 90세인 홍기옥 동창이 대한제국 무관,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헌신한 아버지의 발자취와 하얼빈에서 태어나 90년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홍충희 지사의 딸입니다』(선인출판사)를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8월 13일(화) 오후 3시 용산 전쟁



홍기옥 동창

조정현(생미 63) 동창

모교 명예교수인 조정현 동창이 2024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으로 선정되었다. 1954년 창설된 대한민국 예술원은 현재 각 분야에서 현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예술가들이 회원으로 선출되어 각자 예술적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정현 동창은 모교 조형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문공부장관상 및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대통령상(녹조근정훈장) 등 을 수상했다.



조정현 동창

김의자(사복 64) 동창

성우보육원 원장 김의자 동창이 9월 7일(토) 개최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제34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대한민국 아동시설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포상자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김의자 동창은 1988년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 원장으로 임명된 후 37년간 540 여 명의 요보호 아동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고, 목회자, 공무원, 자영업 등 다양한 사회인들을 배출했다.



김의자 동창

금'으로 명명돼 모교 약학대학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모교는 7월 25일(목) 기금전달식을 개최하고 황민자 동창과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매자(체육 66) 동창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매자 동창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30회 창무국제 공연예술제가 8월 21일(수)부터 31 일(토)까지 서울 아르코예술극장과 서울 남산국악당, 세종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창무예술원이 1993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공연예술축제로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확장'을 비전으로 하는 행사다.



김매자 동창

황민자(의학 64) 동창

황민자 동창이 후배들의 지속 가능한 학업을 지원하고 자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황민자 동창의 자녀 문수경, 문중원 씨도 함께 기부에 참여해 총 3억 원을 모교에 기탁하였다. 본 기부금은 '황민자 약대 장학



김혜순 동창

김혜순(섬예 66) 동창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 김혜순 동창은 7월 2일(화)부터 9일(화)

박진숙(심리 58)·최내경(불문 89) 동창

박진숙 동창이 원장이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팔 최내경(서경대 교수)이자 전문번역인, 작가) 동창이 문화복지위원회로 있는 사단법인 매실보육원이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매실문화공간 아뜰리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기념행사를 열었다. 매실보육원은 박진숙 동창의 어머니 고(故) 최매실 원장이 창립한 곳으로, 부모를 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고 있는 곳이다. 박진숙 동창은 모교 졸업 후 1964년부터 매실보육원의 보육사와 보모, 원장(1995년 취임)으로 봉사하며 소외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낸 공을 인정받아 2004년 국민포장을 받은 데 이어 2005년 제1회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박진숙 동창

최내경 동창

보육원의 문화복지위원회인 최내경 동창은 매실 아뜰리에를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소통의 장이자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공간, 아티스트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라이브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 음식을 맛보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지난해 매실 아뜰리에 개관전에는 김선주(서양 89), 박가나(서양 89), 박현우(서양 89), 양수균(서양 89), 이상미(서양 89), 정연주(서양 89), 한여옥(서양 89) 동창 등 서양화가들이 참여해 가치전을 열었는데, 올해는 이 작가들이 '어린왕자'를 주제로 가치전을 7월 20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매실 아뜰리에에서 열었다.

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3층 전시실 ‘올’에서 매듭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김시재 외 다수의 제자들과 함께 제1회 ‘매듭장 김혜순과 함께’ 전을 개최하였다.

유중근(영문 67) 동창

유중근 동창이 모교에 ‘영어영문학 부 100주년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유중근 동창은 대학적십자사 최초 여성 총재(2011~2014)를 역임했으며, 현재 유엔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 이사장으로서 한동대학교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유 동창과 부군 최창걸(주)고려아연 명예회장은 지난해에도 이화여대 학관 리모델링, 신축 사업에 1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유중근 동창

전수용(영문 76) 동창

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인 전수용 동창이 한국문학번역원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전수용 동창은 문학과 영문 번역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경희대학교 영문과(1993~1997)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1998~2019)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로 활동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과 한국문학번역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고혜숙(조소 77) 동창

8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고혜숙 동창

손정례(섬예 72)·박정례(섬예 79)·차영순(섬예 80)·전영선(섬예 88)·이상영(섬예 94)·오시연(섬예 99)·조연경(섬예 99)·신지혜(섬예 02)·안은선(섬예 07) 동창

한국섬유미술가회는 40주년을 맞이하여 제21회 한국섬유비엔날레 ‘섬유미술 40년, 시간을 잇다’ 전시회를 8월 27일(화)부터 9월 2일(월)까지 한전아트센터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 섬유 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 이 전시회에 섬유예술과 동창 9명이 참여하였다.



박정례 동창

이나경(서양 77) 동창

8월 15일(목)부터 31일(토)까지 전남 여수 도성마을 애그밸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고 김민기 씨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이나경 동창은 〈아침 이슬〉 가사 중 ‘서러움 모두 버리고’를 주제로 고인을 추모하는 현정 전시를 하기로 마음 먹고, 한지와 실크 위에 다양한 천연 염료의 물성을 이용해 나무와 꽃을 그린 평면 회화 30여 점을 선보였다.



이나경 동창

최순희(장미 75) 동창

라끼사웍스 상임고문인 최순희 동창이 모교에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건립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해당 기금은 캠퍼스 서쪽 후문 영역을 최첨단 미래 캠퍼스로 구축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순희 동창은 가구 인테리어 회사 까사미아에서 출발해 호텔, 스토리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주)라끼사웍스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안애순(무용 83) 동창

안애순 동창이 8월 29일(목)부터 9월 1일(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무용단의 신작 ‘행 플러스마이너스(+-)’를 안무하여 선보였다. 안애순 동창이 연출과 안무를 맡은 이번 작품은 2024~2025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의 개막작으로 한국 전통춤과 현대 무용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애순 동창은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애순 동창

이인혜(서양 84) 동창

8월 1일(목)부터 14일(수)까지 전일빌딩 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9인의 초상' 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역사에 대한 부채로 시작한 이인혜 동창의 '10년의 결실'이다. 39인의 초상은 우리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피해 여성 중 2019년 태계한 광주 출신 곽예남 할머니를 포함하여 34명의 한국인 피해자와 5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전시 포스터

창은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시점에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과 국민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정희 동창

계명선(피아노 85)·동수정(대학원 93) 동창

계명선·동수정 동창이 8월 3일(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을 개최하였다. 사제지간인 계명선·동수정 동창은 클레멘티와 모차르트의 소나타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 피아노 듀오의 정수를 선보였다. 계명선 동창은 독일 뮌헨·에르딩·바르텐베르그를 비롯해 서울시향, 수원시향 등 국내외 오케스트리와의 다수의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건반악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동수정 동창은 GIC국제교류센터 음악위원과 이화여대 음대 초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경희(서양 85) 동창

억압된 욕망과 불안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우드인그레이빙 판화기법과 회화를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이경희 동창의 전시가 아트스페이스 엑스 갤러리 개관초대전으로 5월 30일(목)부터 6월 25일(화)까지 열렸다. 또한 8월 국제적 공모인 '뉴욕, 아이러브 유' 전시 최종 파이널리스트 20인에 선정되었다.



이경희 동창

송은주(서양 86) 동창

5월 24일(금)부터 11월 30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새문안교회 외부 공개공간에서 송은주 개인전을 열고 있다. 총 31개의 입체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Prelude_감정의 폭포〉 전시는 서울의 도심 광화문 새문안로에 조형적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송은주 동창

강선희(조소 87) 동창

8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흔이 담긴 손길'이라는 주제로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강선희 동창은 2024년 대한민국문화공현조각대상 수상과 2015년 북경수도사범대 초대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베이징 상임위원, 희 갤러리 관장, 중국미술협회사무국장, 중국 쟁광7예술공간 관장, 국예술국제교류협회 부주석, 국향토예술협회 문화산업부조각가 등 한·중문화교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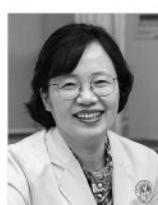
강선희 동창

노정희(법대·법전원 86) 동창

대법관 노정희 동창이 8월 1일(목) 퇴임을 기념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 노정희 동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이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산 대응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주 동창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임산부 분만과 신생아



김영주 동창

들 건강관리를 해왔다. 또한 조산예방치료센터장으로 이론등이 분만과 치료를 향상시켰고, 고위험 임신 예방과 치료 연구에 매진해왔다.

박성연(경영 88)·김문주(경영 92) 동창

박성연·김문주 동창이 '경영학과 60주년 기념 발전기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기금전달식은 김은미 모교 총장,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이해미 대외협력처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일(수) 열렸다. 박성연 동창은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및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김문주 동창은 모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경선(특교 88) 동창

서울농학교에 재직 중인 이경선 동창은 6월 29일(토) '제16회 신일스승상'을 수상하였다. 이경선 동창은 34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장애 극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고양시키고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 이해 교육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경선 동창

전영선(섬예 88) 동창

전영선 동창은 6월 7일(금)부터 10일(월)까지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은하수 팝업 스토어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영선 동창은 전통자수의 현대적 재조명으로 좋은 의미를 가진 전통의 모티브들을 이용한 자작품을 선보였다.



전영선 동창

한여옥(서양 89) 동창

한여옥 동창의 개인전이 8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갤러리 썬에서 열렸다. 전시는 작가가 쌓아온 기억의 조각들 – 행복과 기쁨, 슬픔



한여옥 동창

과 감사 –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순간을 새로운 이미지인 '기억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은하(한음 90) 동창

김은하 동창이 8월 19일(월) 국악방송 신임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김은하 동창은 2000년 국악방송 개국과 함께 PD로 입사해 24년 동안 PD로 재직하며 방송위원 회, 한국PD연합회 및 불교언론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기획과 업무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 등을 수상했다. 라디오제작부장, 광주방송국장, 감사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소영(특교 90) 동창

미국 텍사스공과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이소영 동창이 의사소통장애분야에서 권위 있는 미국 언어청각협회(ASHA) 2024년 펠로우십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AHSA 펠로우십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언어청각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소영 동창

이희옥(서양 90) 동창

서양화가 이희옥 동창이 글로벌 국가격상 선도 문화예술부문 베스트 리더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2024 대한민국콘텐츠 브네상스시대! GreatCompany & Global Leader 대상을 수상했다. 이희옥 동창은 7월 20일(토)부터 28일(일)까지 A.P.Y갤러리에서 개최되는 '그리움으로 말하다' 전시를 시작으로, 7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갤러리이즈에서 개최되는 '제9회 이화평면정신전', 8월 17일(토)부터 22일(목)까지 마루 아트센터 그랜드관에서 열리는 '한국현대회화100선전', 9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프랑스 Galerie Au Medicis에서 개최되는 '제1회 2024 AIAM-ADAGP 글로벌연합회원전' 등에 참가하여 관람객들과 만났다.



이희옥 동창

권소영(의학 91) 동창

7월 17일(수) 제9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에 권소영 동창이 선임됐다. 권소영 동창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면역연구과장, 혈액수혈연구원장, 서울남부혈액원장, 중부혈액검사센터장, 혈액관리본부 혈액안전국장 등을 지내고 대한수혈학회 회장 및 국제수혈학회(ISBT) 부회장을 역임했다.



권소영 동창

김홍미(도예 91) 동창

7월 19일(금)부터 8월 16일(금)까지 뉴욕 Greenwich House Pottery에서 'Ceramics Now', 8월 6일(화)부터 11일(일)까지 뉴욕 One Art Space에서 'Whisper... Dance of 4 Materiality' 등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홍미 동창은 그리니치 하우스와 뉴 캐슬 워터쉐드 도자기 예술 센터에서 레지던시를 이수했으며, 국제 도자기 대회에서 3위에 입상과 함께 스페인, 중국, 영국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하고 있다.



김홍미 동창

이서원(수학 91) 동창

이서원 동창이 세계 여성 통계인 커비스(Caucus for Women in Statistics and Data Science)의 2026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서원 동창은 2004년부터 미주리 주립 대학교 통계학과에 재직 중이며, 응용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센터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서원 동창

이유정(법대·법전원 91) 동창

이유정 동창이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7월 1일(월)부터 3년이다. 새로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게 된 이유정 동창은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함



이유정 동창

께 하면서 ESG센터, 인공지능대응팀 등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해 왔으며, 그동안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인 경영에도 꾸준히 관여해왔다.

최호정(식영 91) 동창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동창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개원한 이후 첫 여성 의장이다. 최호정 동창은 2010년 제8대 서울시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이다.



최호정 동창

장진이(생명 92) 동창

Suhoh Family(www.suhofamily.com) 창립자 겸 대표인 장진이 동창은 9월 5일(목)부터 11일(수)까지 대전 테미 갤러리(구 충남도청관사 테미오래 6호)에서 '동물보호, 힐링, 세계평화를 위한 청담휴먼토끼 수호패밀리'라는 주제로 개인 사진 전시 판매전을 가졌다. 장진이 동창은 Northwest Samar State University-SAP에서 상담학 명예학장과 순수예술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진이 동창

신선아(무용 93) 동창

한국무용가 신선아 동창은 6월 26일(수) (사)대한무용협회 전북지회 주최·주관하는 '2024 전라도 천년의 춤'에 초청되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신관철류 수전춤>을 공연했다. 또한 8월 30일(금)에는 천안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천안시립 흥타령풍물단의 16회 정기공연인 '명품 지인무전'에 초청되어 같은 작품 <신관철류 수전춤>을 공연했다. 신선아 동창은 부친인 신관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9호 수건춤 보유자의 대를 이어 전통춤 전승과 보급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신선아 동창

이향운(의학 93) 동창

이화의생명연구원 원장 이향운 동창이 6월 26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뇌기능매핑학회(Organization of Human Brain Mapping) 학술대회에서 여성특별활동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향운 동창은 뇌전증과 수면장애 치료 분야 명의로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장, 이화메디테크 융합의료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향운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이상영 동창은 2024 오산시립미술관 야외컨테이너전 'Show Con' 작가로 선정되어 8월 20일(화)부터 10월 27일(일)까지 오산시립미술관 야외 컨테이너 3동에서 '미완의 유토피아_빛이 만들어낸 색'을 주제로 전시 중이다. 작가는 아크릴 박스와 거울로 만든 공간 안에서 빛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한다.



이상영 동창

최문희(의학 93) 동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문희 동창이 제14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최문희 동창은 2018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전체 의사 200여 명 가운데 '올해 최고의 의사, Dr.Comwel'로 선정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PCR 검사 등 재난 대응 업무를 이끌며 공공의료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자랑스런 공단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문희 동창

진선희(법대·법전원 94) 동창

진선희 동창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임명되었다. 여성 고위급 공무원이 없던 국회사무처에 첫 입법차장(차관급)이다. 진선희 동창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았다.

공성아(경제 94)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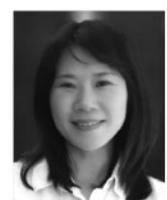
공성아 동창이 대표로 이끄는 애슬레저 브랜드 앤다르가 6월 24일(월)부터 7월 11일(목)까지 일본 도쿄 유라쿠초 마루이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였다. 앤다르는 지난 2월 오사카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도 8월과 10월에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일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성아 동창

이지선(Jiseon Lee Isbara, 섬예 96) 동창

7월 16일(화) 이지선 동창이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SAIC)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지선 동창은 SAIC의 158년 역사에서 두 번째 여성 총장이다. 이지선 동창은 Oregon College of Art and Craft (OCAC)와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의 탄탄한 경험, 학생들의 성공 및 문화에 맞는 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해 SAIC의 다음 장을 이끌 능력과 비전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선 동창

소라미(영문 97) 동창

9월 13일(금) 변호사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로 재직 중인 소라미 동창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소라미 동창은 2004년 한국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라미 동창

김양선(조소 94) 동창

8월 13일(화)부터 24일(토)까지 'Will You Be My Home?'이라는 주제로 SPACE HB01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양선 동창

약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여성 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 서울시 아동복지 심의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오신(서양 98) 동창

8월 3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울산시 동구 소재 슬도아트에서 기획 초대전 '권오신 전: A Two-Volume Diary'를 가졌다. 작가의 기억들을 석판화로 표현한 'Memory' 시리즈 작품과 동화『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를 모티브로 작업한 'YOU n I-8+1', 지난 5월 OCI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관람객 참여 작품 'Exchange'를 중심으로 구성해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권오신 동창

이경희(동양 98) 동창

8월 26일(월)부터 10월 3일(목)까지 갤러리H(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草緣 뒤란(초록울타리)' 초대전을 가졌다.



이경희 동창

이말용(조소 98) 동창

9월 7일(토)부터 28일(토)까지 여수시 도성마을 에그갤러리 개관 3주년 기념 초대전 '실체 없는 각성'을 갖고 설치 및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오프닝은 9월 7일(토) 오후 4시로, 도성마을 애양청소년오케스트라가 오프닝 특별 연주를 하였다.



이말용 동창

홍유영(조소 98) 동창

홍유영 동창이 제2회 삼보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9월 6일(금) 대구문화예술회관 중정홀에서 열렸으며,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2025년 하반기에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 수상작가 기념



홍유영 동창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홍유영 동창은 이길이구 갤러리, 스페이스돔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신수희(약학 99) 동창

6월 20일(목) 신수희 동창이 암젠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신수희 동창은 주요 다국적 제약사에서 리더를 역임했으며, 25년 이상 제약 업계에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의 비즈니스 전략 개발과 성공을 이끌어온 전문가로, 최근까지 한국로슈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책임자로서 종양학, 안과학, 신경과학, 전염병 등에서 포트폴리오 전략과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 왔다.



신수희 동창

유혜원(국제대학원 99) 동창

유혜원 동창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언어학습 및 기술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2 언어 어휘 학습, 글 쓰기의 교정적 피드백, 지도를 통한 제2 언어 습득 등이다.



유혜원 동창

허유경(법학 00) 동창

8월 1일(목) 미국 플로리다주 성 토마스 대학교 로스쿨(St. Thomas University Benjamin L. Crump College of Law, Miami)에서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임용되어 〈계약법〉과 〈인공지능과 법〉을 강의하게 되었다. 허유경 동창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사)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계소비자기구 위원이다.



허유경 동창

권민진(동양 01) 동창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는 뱅크아트페어(Bank Art Fair)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권민진 동창은 그동안 수십 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출품했으며 미술세계 뉴프론티어전 동양화 부문 특선(2001), 한국기독교미술대전 특선(2022), 이화여대 양자역학 공모전 예선 통과 및 도록 수록(2021)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쌓았다.

김나영(사회과교육 01) 동창

7월 29일(월) 교보문고 주최로 여름방학 청소년 릴레이 특강 <게임하며 익히는 경제와 수학> 강연을 하였다. 김나영 동창이 지난 2월에 출간한 책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이 청소년 인기 도서로 꼽히면서 열린 강의다. 김나영 동창은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성희(성악 01) 동창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동창이 9월 2일(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독창회 ‘시간을 초월한 여정’을 가졌다. 25년간 오페라 무대에서 이탈리아어로 노래해온 박성희 동창이 ‘아리랑’ 등 우리 소리를 무대 위에서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외할아버지인 판소리 국창 임방울(1904~1961)에 대한 존경도 담았다.



박성희 동창

김수진(섬예 02) 동창

김수진 동창은 8월 10일(토)부터 31일(토)까지 라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이 전시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모호한 끊임없는 의문이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색면 작업은 색동이 확장되어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전달하듯이 인간의 삶의 물음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김수진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6월 4일(화)부터 7월 26일(금)까지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이라는



김순임 동창

주제로 부안군역사문화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진민숙(동양 03) 동창

7월 8일(월)부터 27일(토)까지 오묘 서울에서 기획전 ‘Intervers’를 열었다.



진민숙 동창

김아영(도예 04)·이은영(도예 10) 동창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서 김아영 동창의 『조룡복원도』가 GCB 우수상을, 이은영 동창의 『Pixie Ring』이 GCB 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회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자 공모전이다.



김아영 동창



이은영 동창

서영민(섬예 06) 동창

서영민 동창은 갤러리 플로우 선정 작가로 선정되어 7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갤러리 플로우에서 전시를 하였다. 인간은 끊임없는 감정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서영민 동창은 이러한 무수한 감정의 연결고리들이 마치 ‘감정 세포’와 같다 고 생각하고 가느다란 에나멜 선과 비즈 등의 반복적 연결 작업을 통해 ‘감정 세포’를 작업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영민 동창

허주영(약학 06) 동창

허주영 동창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물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비만에 의한 대사성 질환의 발생기전과 운동에 의한 대사질환 치료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임상 연구를 융



허주영 동창

합한 중개연구를 수행 중이다.

노해현(한음 07) 동창

노해현 동창이 '임방울국악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특별상은 국악분야 장래가 유망한 45세 이하 국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9월 6일(금)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야제에서 있었다. 노해현 동창은 '노해현그리고판소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해현 동창

오혜재(영문 07) 동창

9월 5일(목)부터 10일(화)까지 파리 Galerie Le Cerisier에서 열리는 <한국 영혼의 메아리(Echos de l'âme Coréenne)> 전시, 그리고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9월 7일(토)부터 28일(토)까지 밴쿠버 Outsiders and Others에서 개최하는 <깊은 밤 노래하는 검은 새(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전시에 참여하여 작품을 선보였다. 2014년부터 독학 예술가로 활동해 온 오혜재 동창은 영국의 문화예술 분야 글로벌 구인/구직 사이트인 아트잡스(artjobs.com) 주최 '2024년 2월 이달의 아티스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저술가로도 활동 중이다.



오혜재 동창

이기쁨(한음 07) 동창

이기쁨 동창이 9월 8일(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옥 '양유당'에서 '가곡 한바탕 프로젝트: 시명(SPACE|OUT)'을 열었다. 이날 공연에서 <계면조 태평거> 등 가곡 15곡을 두 시간에 걸쳐 들려주었다. '시명'은 '시(詩)'와 명하니 있다고 할 때의 '명'을 합친 조어이다. 이기쁨 동창은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



이기쁨 동창

자이며, 해녀 헌정 음반 <해녀, 이름을 잇다>에 <숨비 소리>의 작사가와 가창자로 참여했다.

장서영(조소 07) 동창

우민아트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우민재단이 후원하는 제23회 우민미술상에 장서영 동창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8월 14일(수) 오후 2시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시상금과 2025년도에 우민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여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서영 동창은 영상, 텍스트,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체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장서영 동창

김세은(간호 10) 동창

7월 24일(수) 김세은 동창이 제이앤피메디 상무로 부임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경력을 시작한 김세은 동창은 이후 CRO(임상수탁기관)인 LSK Global PS에서 임상시험 운영, 데이터 관리 및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사업개발회사로서 국내외 다양한 제약·바이오기업 및 CRO와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의뢰자들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는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



김세은 동창

이예진(성악 11) 동창

소프라노 이예진 동창이 2024 GAF(Glocal Acting Festival)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GAF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하는 전통 있는 공연예술제이다. 이예진 동창은 다수의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영유아음악교육



이예진 동창

학회 및 한국교육연극협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강성아(무아, 동양 16) 동창

시애틀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강성아 동창의 개인전 'Table of Thoughts(생각을 지탱하는 테이블)'가 오는 6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4일간 밸러드에 위치한 AterlierLuer 쇼룸에서 열렸다. 강성아 동창은 동양화 기법을 기반으로 회화, 조각, 가구, 텍스타일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작품을 선보이는 신예 아티스트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Table of Thoughts'는 3번째 개인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동양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한 정체성과 변화를 그리고 있다.



강성아 동창

이정(약학 16) 동창

이정 동창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조

교수로 임용되었다. 주요 관심분야는 Patient-Centered Pharmaceutical Care, Clinical Pharmacogenomics와 Risk Prediction Model이다.



이정 동창

김진선(조소 19) 동창

8월 8일(목)부터 28일(수)까지 'COEXISTANCE: WE ARE ALL MATTER'라는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FF Seoul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진선 동창

이용현(대학원 22) 동창

6월 28일(금)부터 8월 18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김종영미술관에서 '우발적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용현 동창

총동창회 후원이사를 모십니다

총동창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화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가 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회비는 연 100만 원(이상)입니다.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바탕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모교발전기금 전달, 각종 사업(정기총회 및 산입동창 환영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기념행사 및 협정체계,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 및 '이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대비자회, 국내 및 해외 자회 순방,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 《이화동창》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화,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주인이자 힘의 원천은 바로 '이화동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후원이사 기업을 통해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총동창회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 창 이 페 낸 새 책



시드니 할매's 데카메론

배명희(섬에 69)·심무경(영문 70)·양혜자(문정 71)

김수영·김정인·박조향·배명희·심무경·양혜자·이마리 지음 / 푸른사상

배명희·심무경·양혜자 동창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다른 네 명의 수필가와 함께 공저한 수필집이 출간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독서 모임을 글쓰기 모임으로 변신시켰다. 글쓰기가 처음이었던 할머니들은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일곱 할머니의 우아하고 유머러스한 에세이 속에는 지나온 삶의 기쁨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속 진심들이 보물찾기처럼 담겨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함께 참여하기

박랑규(심리 76)·강우선(심리 89)·정나영(대학원 13)

스탠리 그린스판·세레나 와이더 지음, 박랑규·강우선·정나영·김세희 옮김 / 굿에듀

이 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전문가 그리고 기타 양육자에게 건강한 발달의 기초 쌓기에 중점

을 둔 개인 맞춤형 치료모델인 DIR 치료법에 관해 설명한 책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관계 참여, 의사 소통, 사고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기초 능력을 위해 DIR/플로어 타임을 사용한다. 역사 대표를 맡은 박랑규 동창은 한국자폐학회 7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생명의 몸 과정의 몸 변혁의 몸

조기숙(무용 85)

조기숙 지음 / 푸른사상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기숙 동창이『생명의 몸 과정의 몸 변혁의 몸』을 출간했다. 춤추는 사람인 조기숙 동창이 체득한 체험을 바탕으로 21세기 최고의 화두인 '몸'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펼쳐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몸은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된 몸으로서, 조기숙 동창은 몸에서 비롯되는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에 대한 '평범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파리가 사랑한 카페

최내경(불문 89)

최내경 지음 / 북커스

최내경 동창이 프랑스 파리의 유명 카페를 다룬 기행문집『파리가 사랑한 카페』를 폐냈다. 최내경 동창은 이 책을 위해 파리의 유명 카페 20여 곳을 일일이 텁방하고 취재하였다. 최 동창은 이 책에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아지트 카페 플로르, 바스티유 광장의 철학 카페 데 파르, 아르누보 감성의 막심과 책의 향기 가득한 셰익스피어 앤 컴퍼



니까지, 파리의 낭만을 가끼이 마주하는 오래되고 멋진 카페 이야기를 담았다. 최내경 동창은 서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불문화예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오늘, 아내가 사라졌다

김윤덕(정외 92)

김윤덕 지음 / 나남

김윤덕 동창이 에세이집『오늘, 아내가 사라졌다』를 폐냈다. 이 책에서 김윤덕 동창은 전국 팔도에서 '입에 단내 나도록' 살아온 필부필부의 인생사를 글감으로 삼아 삶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을 활달한 입말로 써 내려갔다. 김윤덕 동창은 월간 『샘터』와 『경향신문』을 거쳐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다.『우리는 모두 사랑을 모르는 남자와 산다』,『겪어야 진짜』,『유모차 밀고 유럽 여행』 등의 저서가 있다.



빠져들다 SMITTEN

장진이(생명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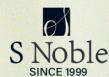
장진이 지음 / 수호페밀리

장진이 동창이 세계적 아이돌들의 우주 속 사랑 이야기인 SF 소설『빠져들다 SMITTEN』을 출간하였다. 저자 장진이 동창은 뒤늦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깨달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정화된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소설을 창작했다. Northwest Samar State University-SAP에서 상담학 명예학장, 순수예술학 명예교수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이 동창은 시 창작으로 백일장 우수상과 아시아문예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책은 교보 POD와 eBook 코너에서 판매 한다.





국내 최초 V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5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이화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 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7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미만(1988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